

이름없는 이들이 다져가는 겨레사랑의 자리

우리말 우리얼

제 96 호 2017년 12월 4일

◀ 차례 ▶

한글과 한글날, 주시경 선생님과 한글학회를 흔드는 무리들 이대로	2
우리말을 살리는 길 김정섭	7
쪽저고리와 잊저고리 권정생	14
지금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왕우선	15
조선동의어사전 리현태	17
바른 말 바른 글 이오덕	25
문법을 지키지 않는 겹말들 미승우	39
토박이 마을과 땅 이름 권순채	53
한국 토종 이야기 홍석화	66
이런 책을 읽지 맙시다 이정우	80
알립니다	98

펴낸 곳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전화: 010-4715-9190(이대로)

주소 : 충주시 신니면 광월리 356번지 이오덕학교 / 전화: 043-844-6622

전자우편 주소: 25duk1@daum.net, idaero@hanmail.net

누리집 주소 : 우리말 우리얼 <http://cafe.daum.net/malel>

한글과 한글날, 주시경 선생과 한글학회를 흔드는 무리들

이대로 우리모임 공동대표

요즘 세종대왕을 존경한다면서 한글과 한글학회를 헐뜯고 깃밟는 이들이 설치고 있다. 누구나 마음대로 제 뜻을 한글로 적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제멋대로 지껄여서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들은 마치 제가 가장 훌륭한 학자요 전문가인 것처럼 큰소리친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처음 만든 글자가 아니고 고조선 때부터 있던 글자를 본 따서 만들었다느니, 글자 이름을 ‘한글’이 아니고 ‘정음’이라고 해야 한다느니, 한글날의 날짜가 틀렸다는니 하는 이들이 그런 자들이다. 저만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말해서 한글과 세종대왕을 더럽히고 있다.

설사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도 지금은 그런 논쟁으로 국력을 허비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한글을 잘 이용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한글을 빛낼 것인가 힘을 때다.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본질을 벗어난 주장인데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크게 보도하는 언론까지 있으니 답답하다. 언론과 정부는 무엇이 참인지 똑바로 알고 잘 처신하기 바란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처음 태어났을 때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그리고 언문이라고도 했고, 여자들이 쓴다고 ‘암글’이라고도 하다가 대한제국 때 고종이 처음으로 ‘국문’이라고 했는데 나라 글자란 뜻이다. 그 전에는 중국이

두려워 우리나라 글자라고도 못했고, 우리 글자에 제대로 된 이름도 없었다. 마침내 1907년 고종 때에 정부 안에 우리 글자를 다듬고 널리 쓰게 하려고 ‘국문연구소’도 만들었고, 1908년에 민간 학술단체인 국어연구학회(지금 한글학회)를 조직하고 우리 말글을 가르치고 널리 알렸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글자를 다듬고 널리 쓰게 해 우리 글자 힘으로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전에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일본말이 국어(나라 말)가 되고 일본 글자가 나라 글자가 되니 우리 글자를 국문(나라글자)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말을 국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도 주시경은 우리 글자를 살려서 우리말과 우리겨레를 살리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고 1911년 국어연구학회를 “배달말글뭉음(朝鮮言文會)”으로 바꾸고, “국어강습소”는 “조선어강습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나라도 없어졌으니 우리말과 글자에 몇몇한 이름을 지어 부르자고 우리말은 ‘한말’, 우리 글자는 ‘한글’이라고 새로 짓고, ‘배달말글뭉음’도 ‘한글모’로, ‘조선어강습소’도 ‘한글배곧’이라고 바꾸었다.

그리고 주시경은 한글책 보따리를 들고 배재학당, 보성학교 등 10여 개 학교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한글을 가르쳤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 글자를 더 가르쳐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주시경을 ‘주보따리’라는 별명까지 붙여 불렀다. 그러나 1914년 주시경이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한글모’ 활동이 뜸해다가 1921년 ‘조선어연구회’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재개했고, 다시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꾼 뒤에 ‘한글날’을 제정하고 ‘한글’이란 연구지도 내고 표준말과 한글맞춤법을 제정하고 우리말 사전도 만들었다. 모두 우리 말글을 다듬어 우리 말글로 교육을 해서 나라를 되

찾겠다는 뜻에서 한 일이다.

그런데 그 때 주시경과 조선어학회가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왔다. 바로 박승빈이 친일 세력인 윤치호 무리들의 도움을 받아 ‘조선어학연구회’란 모임을 만들고 우리 글자 이름도 ‘한글’이 아닌 ‘정음’이라고 하면서 조선어학회가 만든 한글맞춤법을 반대했다. 그러나 그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들 민족 언론과 문필가들이 많은 토론 끝에 박승빈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서 조선어학회가 승리했다. 그런데 1942년 일제는 조선어학회 사람들을 감옥소에 가두고 학회 활동을 못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똑 같은 우리 말글단체를 만들고 활동한 박승빈 일파는 잡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박승빈은 황국신민이 되자고 친일 활동에 나선다. 여기서 나는 박승빈이 일본의 앞잡이로서 한글과 조선어학회를 죽이려고 했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 박승빈을 내세우며 우리 글자 이름을 ‘한글’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고 ‘정음’이라고 해야 하며, 한글맞춤법도 잘못되었다는 이들이 주시경과 한글학회를 헐뜯고 있다. 거기다가 한글날 날짜도 잘못되었다고 떠들으니 행안부는 검토하겠단다. 정부가 한글학회를 짓밟던 친일분자 박승빈과 일본식 한자혼용을 주장하는 이들의 편을 드는 꼴이다. 한글이라는 이름과 한글날과 한글학회가 없었다면 지금도 조선시대처럼 한문을 쓰거나 일제 강점기처럼 한자혼용을 할 것이다. 한글과 한글학회 덕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문맹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되어 국민 수준이 높아졌고, 그 바탕에서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빨리 경제와 민주주의도 발전했다. 그런데 한글과 한글을 지킨 분들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헐뜯고 있으니 답답하다.

한글날 날짜 문제도 그렇다. 일본 지배를 받던 1926년 한글날을 처음 정했

을 때도 이름은 ‘가갸날’이었고 날짜도 음력 9월 29일로 정했다가 1928년에 이름을 ‘한글날’로 바꾸었고, 날짜도 1933년부터 양력으로 바뀌어서 10월 29일로 행사를 했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 되어 그 근거로 광복 뒤 많은 토론 끝에 10월 9일로 정했고 지난 70년 동안 한글날이 되면 한글을 빛내줬다고 다짐하고 온 국민이 힘써서 오늘날 한글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한글’이란 이름에 대해 한마디 더한다. 지금 우리는 한글이라고 부르고 북에서 ‘조선글’이라고 한다고 ‘정음’이란 이름으로 통일하자는 이들이 있다. 그것도 잘못이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남북이 갈라지기 전인 일본 강점기 때에도 함께 쓰던 명칭이고, 한글날도 마찬가지로 일제 때에 정하고 온 겨레가 함께 기린 우리 글자 기념일이다. 그런데 광복 뒤 북은 그 글자 이름을 ‘조선글’이라고 하고, 글자기념일은 한글 창제 일을 기준으로 1월 15일로 정하고 “조선글의 날”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중국 연변 동포들은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승격된 9월 3일의 하루 전날인 9월 2일을 “조선족글자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지금 남북과 중국 동포가 모두 글자 이름도 다르고 기념일도 다르지만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온 겨레가 모두 우리 글자를 ‘한글’이라고 부르며 글자의 날을 ‘한글날’이라고 했으니 남북 모두 우리 글자를 ‘한글’이라고 부르고, 기념일은 ‘한글날’이라고 해야 옳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글자 이름과 기념일을 하나로 통일하려면 나라가 통일이 되었을 때 다시 논의하고 합의해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글자 이름과 기념일이 틀렸다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 말글 문제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서 잘못된 일이다.

다시 외친다. “글자 이름과 기념일을 가지고 국력을 낭비하지 말자. 오늘날 우리는 한글을 우리말을 적고 읽는 데만 씀으로서 한글이 가진 엄청난게 큰 능력과 쓸모를 30%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썸튼과학시대를 맞이해 세계 으뜸 소리글자요 과학글자인 한글을 잘 이용해 음성인식기계통번역기와 세계 으뜸 인공지능기계를 개발하고, 한글로 훌륭한 논문과 문학 작품을 써서 한글 이용률을 100%로 늘리자. 그래서 세계 으뜸 겨레, 나라가 되자.”

우리말을 살리는 길

김정섭 우리말바로쓰기모임

1. 들머리

지난 일흔 해 넘게 우리말을 되살리려고 우리 나름대로 온갖 애를 다 써 왔다. ‘우리말 도로 찾기, 한글만 쓰기’, ‘국어 순화 운동’ 따위가 그것이다. 한글학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은 말할 것 없고 정부까지 나서서 이 일을 벌였지만 우리말은 제 자리를 찾지 못 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말글살이에서 한문글자는 줄었지만 한자말은 늘어났고 ‘우리말을 바로 쓰자’나 ‘우리말을 살리자’는 말은 다들 껌등을 넘겨듣고 만다. 게다가 학교 교과서에는 다시 한문글자를 되살리려는 일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그 까닭을 간추려 보면 첫째, 우

리말의 이름을 ‘국어’라 한다. 둘째, 우리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른다. 셋째, 한자말을 우리말이라 하고 한문글자도 우리 글자라고 한다. 넷째, 들은말이 무엇인지 모른다. 다섯째, 들은말을 가려내는 법을 만들지 않았고 들은말을 가려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여섯째, 먹물 든 사람들과 나랏일을 맡아하는 벼슬아치나 구실아치들이 옛날 중국 종살이 버릇에 찌들었을 뿐만 아니라 힘센 나라 눈치나 보면서 비렁뱅이 짓을 하던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 한 것이 그것이다.

2. 우리말의 이름

‘국어’는 ‘나라말’을 일컫는 한자

말이다. ‘중국 국어, 일본 국어, 한국 국어’처럼 ‘어느 나라말’이라 할 때 쓰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중국말을, 일본에서는 일본말을 ‘국어’라 하는데 이는 ‘우리말’이나 ‘우리나라 말’이란 뜻이지 제 나라 말의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다. ‘국어’는 어느 나라 말의 이름으로 쓸 수 없다. 우리는 일찍이 우리말을 ‘국어’라 부른 적이 없다. 왜놈들이 우리 겨레 얼을 없애려는 못된 수작으로 우리말을 ‘조선어’라 하고 왜말을 ‘국어’라 한데서 비롯한 이름이다. 나라를 되찾은 뒤 얼떨결에 우리말에 ‘국어’라는 이름을 비력질하여 붙인 것이 두고두고 말썽이다.

그 뒤 여러 차례 바로잡을 수도 있었건만 왜놈 종살이버릇이 몸에 밴 ‘든 사람들’이 나랏일을 도맡아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비뚤어진 길로 이끌어온 뒤끝이고, 크고 힘센 나라 것은 아무거나 우러러보고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비렁뱅이버릇으로 비력질해 온 율이라 하겠다. 자랑스러운 이름 ‘배

달말’을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 하고 우리 겨레 숨통을 옥아매던 ‘국어’를 우리말의 이름으로 삼았으니 우리말이 아직도 한자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했고 앞날마저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3. 배달말과 들온말

우리말은 ‘배달겨레말과 한자말과 들온말(서양말)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뭘 몰라서 하는 말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올림말에서 배달말은 한글로, 한자말과 서양말에는 도림(뭍음표) 속에 한문글자나, 꼬부랑글자를 덧붙여 놓았다. 이를 내세워 한자말도 우리말이라 하고, 한문글자도 우리 글자라 하면서 서양말만 들온말이라 하는 까닭을 알 수 없다. 배달겨레말은 우리 배달겨레가 만들어 쓰는 말(토박이말)이고 들온말은 우리 말밭에 여러 다른 겨레말이 들어와 우리말로 뿌리를 내린 말이다.

어느 겨레말이든 이웃끼리 오가

며 섞사귀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연모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다른 겨레말이 섞이게 마련이다. 우리말에도 예부터 오늘까지 다른 겨레말이 들어와 우리 겨레말과 섞여 있다. 곧 배달겨레말 바탕에 알타이 말, 산스크리트 말, 인디아 말, 길랴크 말, 통구스 말을 비롯하여 중국 말, 몽골 말, 만주 말, 왜말과 여러 가지 서양 말 또 한자말 따위 예순 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나라말이 들어와 우리 말로서 구실을 한다. 곧, 우리말은 배달겨레말과 들온말 두 갈래를 아우른 말이다.

4. 들온말 받아들이기

들온말은 우리말 구실을 하는 다른 나라(겨레)말을 가리킨다. ‘가마니, 가방, 건달, 길마, 고무, 껌, 나귀, 노새, 달구지, 담배, 매주, 무명, 보라매, 부처, 붓, 빵, 사둔, 상추, 선지, 설렁탕, 염소, 올가미, 지단, 호미’ 따위가 그 보기다. 이런 말은 못입이 주고받으면서 갈리고 뉘여서 온전

히 우리말로 탈바꿈한 것이다. 곧, 들온말이란 겨레말과 함께 우리말을 이루는 두 갈래 가운데 하나다. 들온말은 우리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겨레)말에서 들어왔건 반드시 한글로만 적어야 한다.

옛날에는 들온말이 되려면 오랜 시간 못입을 거치면서 우리말 말발에 시나브로 뿌리를 내렸지만 요즘은 온갖 나라 사람들이 무리지어 오가고 과학 문명이 만들어낸 갖가지 물건과 정신문화가 빚어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갈말(학술용어), 솜씨말(기술용어)과 나날말(생활용어) 따위가 한꺼번에 어지럽게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 다른 나라말은 우리말과 자리싸움을 하는데 이긴 쪽은 살고 진 쪽을 죽는다. 말은 겨레얼이요, 목숨이요, 문화다. 우리말 하나가 죽으면 우리얼, 우리 문화 한 조각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라마다 제 나라말을 지키기에 온 힘을 기울인다. 이때, 다른 나라말을 덮어놓고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없지만 막아서도 안 된다.

쓸모가 없는 말은 막아야 하고, 쓸데가 있는 말은 들은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들은말은 많이 받아들일수록 좋다. 우리말을 살찌워서 생각을 더 넓고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학문과 예술, 기술 따위 문화를 높이고 우리 삶을 기쁨지게 하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쓸모없는 말과 쓸데 있는 말을 슬기롭게 가려내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다.

말이란 보고 듣고 느낀 것과 어떤 뜻이나 생각을 누구든 귀로 듣고 알아 채릴 수 있도록 나타낸 목소리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글자에 담은 것이 글이다. 그런데 나타내는 소리나 글을 쓰는 법이 사람마다 다르면 말과 글이 제 구실을 못 한다. 그래서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말소리를 듣거나 글을 읽고 그 속내를 두루 알 수 있도록 ‘어문 규정’을 만들어 여기에 기대어 말과 글을 부려 쓰게 한다. 우리 ‘어문 규정’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네 가지가 있다.

들은말도 여느 말글과 마찬가지로

다. 아무나 마음대로 다른 나라 말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 우리말을 죽이고 우리 말투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준말 규정. 1부, 1장, 2항’에 ‘들온말 가려잡기 (외래어 사정)’란 길목을 만들어 물밀 듯이 넘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말을 막을 것은 막고 거를 것은 걸러서 꼭 쓸모가 있는 말만 골라 들은말로 받아들이도록 못을 박아두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들온말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어문 규정’에는 아직 이 법이 없다.

5. 한자말은 우리말인가

한자말은 배달겨레말이 아니고 들은말도 아니다. 그런데도 한자말이 우리말이고 한문글자도 우리 글자라고 우기는 데는 ‘국어’라는 한자말 이름과 ‘표준국어대사전’이 큰 빌미가 된다. 우리말의 이름이 ‘국어’이니 모든 한자말도 우리말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정부(문화부, 국어원)에서 우리말 본보기로 만든 ‘표

중국어대사전'의 올림말이 겨레말 25.9%, 한자말 58.1%, 겨레말이 덧붙은 한자말 10.6%, 서양말 5.4%이다. 한자말이 올림말의 68.7을 차지하니 우리말이고 한문글자도 우리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자말이든 서양말이든 우리말이 되려면 반드시 들온말로 가려 받아 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들온말을 가려잡은 적이 없다. 이 일을 했다는 분도 있지만 들온말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고 장님 지팡이대로 아무렇게나 가려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들온말 가려잡는 법 (외래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들온말 잣대 (외래어 사정 원칙)가 없는데 어디에 기대어 가려잡았다는 말인가? '국어심의위원회'에서도 '들온말 규정' 없이 마음대로 들온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자말에는 중국 옛말과 요즘 중국말, 일본에서 만든 말,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도 있다. 그런데 같은 한자말이라도 중국, 일본, 한국에서 읽

는 소리가 제가끔 다르고 뜻도 다른 것이 많다. 한자말은 중국에서는 중국말이고 일본에서는 일본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다. 한자말은 배달겨레말과 뿌리가 다르니 겨레말이 아니고, 들온말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 우리말이 아니다. 흔히 한자말을 천 년 넘게 써 왔다는데 몰라서 하는 말이다. 말글살이에 한자말을 쓴 것은 왜놈들이 '국어 상용'으로 가르친 뒤다.

6. 우리말을 살리는 길

우리 겨레말은 날이 갈수록 한자말과 서양말에 밀려서 나라말 자리를 빼앗기고 사라져 간다. 말투마저 일본 말투, 서양 말투를 닮아서 비뚤어지고 있다. 그 뒤끝은 뻔하다. 겨레문화와 겨레다움(정체성)이 사라지고 겨레 생각마저 비뚤어진다. 나중엔 우리나라 사람끼리 말을 주고 받기도 어렵게 된다. 얼빠진 겨레, 생각이 뒤틀린 겨레, 힘을 모를 수도 없는 겨레는 끝내 이 누리에서 사라

질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말을 살리고 우리 말투도 바로잡아서 우리말을 바로 알고 바로 쓰도록 해야 한다.

길은 하나다. ‘들온말 규정’을 만들고 이어서 ‘표준국어대사전’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자말과 서양말은 모조리 ‘들온말 가리기 (외래어 사정)’를 해야 한다. ‘들온말 잣대 (외래어 사정 원칙)’로 마름질하여 들온말과 버릴 말로 갈라낼 때 한자말 굴레에서 벗어나고 서양말로 쏠리는 눈길도 바로잡혀 우리말이 살아난다. 이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말을 살리는 오직 하나뿐이고 바른 길이다. 겨레 얼굴, 겨레 삶, 겨레 얼, 겨레 문화는 우리말이 살아날 때 비로소 바로 선다.

7. 나무리

우리 겨레 핏줄에는 예부터 아픈 내림이 이어온다. 한문글자를 눈앞에 들이밀면 바로 무릎을 꿇고, 힘센

나라 앞에만 서면 굽실거리는 종놈 버릇이다. 젊어 한때는 이 버릇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도 치지만, 돈다발이 눈앞에 어른거리거나 나랏일은 말는 자리에 앉거나 나이 들면 내림버릇이 도진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말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된다. 힘센 나라를 높이 보고 그런 나라 말과 글자를 우러러 보는 이 버릇을 씻어내야 우리말이 마음껏 자라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한자말을 비롯한 온갖 다른 나라 말은 들온말과 버릴 말로 갈라내고, 이어서 한문글자나 서양꼬부랑글자 따위 다른 나라 글자가 한 자도 섞이지 않은 진짜 ‘우리말 본보기 사전’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말밭에서라야 우리말이 싹트고 이 싹이 자라서 아름답리나무가 되고 수많은 나무는 우거진 숲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는 글자 싸움에 휘둘리거나 다른 나라 말이 우리말 안방을 넘볼 수 없게 된다. 우리말이 되살아나서 겨레 삶을 드

높이고 겨레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끝)

이대로 입니다.

김정섭님께서 이번 회보에 쓰신 “우리말을 살리는 길”은 참 좋은 말씀이고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우리말을 ‘배달말’이라고 하자는 말씀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학회, 그리고 일제 때 독립지사들이 우리 글자는 ‘한글’, 우리말은 ‘한말’이라고 하자고 했고,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글’이라는 말은 한글날도 있고 한글학회란 이름도 있어서 뿌리내렸지만 ‘한말’이란 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글학회와 많은 사람들이 ‘한말’이란 말을 쓰고 있고, 우리말글을 통틀어서 말할 때엔 ‘한말글’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우리말을 일컫는 말로 ‘한국어’와 ‘한말’이라는 말과 함께 “배달겨레말, 한겨레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 함께 생각해보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쪽저고리와 잇저고리

권정생 동화작가

쪽을손가 쪽저고리 잇틀손가 잇저고리
사슬동정 높이달고 백자고름 섰이달고
햇대 끝에 걸어놓고 시애각시 어디 갔나
치마꼬리 달랑달랑 물 깊은 거 불쌍해라
앞다리가 가튼가튼 방 찢든 거 불쌍해라

〈저고리 노래〉라고 하는 우리 민요이다. 저고리를 햇대 끝에 걸어 놓고 죽은 시애각시를 생각하면서 부른 것인데, 여기 나오는 쪽저고리 잇저고리가 어떤 옷인지 알아 보고 싶어 옮겨 보았다. 쪽저고리는 쪽물을 들여 만든 쪽빛깔, 다시 말해 하늘색 저고리고 잇저고리는 잇꽃물을 들여 만든 붉은 자주색 저고리다. 요즘은 잇꽃을 모두 홍화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이름 잇꽃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높이’란 높이의 옛말이고 ‘섰이’

는 조금 아래쪽을 가리키는 옛말이다. 이곳 안동 지방 밑에는 우리말의 본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참 많다. 가을(秋)을 가실, 혹은 가슬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가슬이었던 것이 세월이 가면서 가을이라 바뀌어진 것일 게다. 겨울도 저슬이라 하는데 원래는 어슬이라 했던 게 아닐까?

길(道)을 질이라고 하는데 난질이 라고 하면 먼길 혹은 자유, 해방이란 뜻도 담겨 있다.

치녀를 가리키는 원래 우리말은 가시내라 하는데 어찌다가 이 아름다운 ‘가시내’가 속어가 되어 버렸는지 이상하다. 가시내의 반대가 사내다. 가시나이 사나이, 이런 아름다운 말이 한자말인 여자, 남자, 처녀, 총각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이상하고 쌍스러운 ‘그녀’라는 말까지 빌

어다 쓰고 있지 않는가. (2000)

그때 옆에 있던 내 친구가 한국

지금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왕우선 연변대학조선어전문학과 1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호남성에서 나고 자란 왕우선입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의 성형 수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제 느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본 제가 글로 남길 정도로 놀란 일이 몇 일 전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성형수술 전후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가 중학생 때의 모습과 달라진 지금의 그녀는 천지차이였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를 보고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에 다녀와서 성형 수술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눈치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저렇게 까지 해서 살아야겠느냐며 경멸스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와 성형 수술입니다.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은 사람의 내면은 보지 않고 겉뿐인 아름다운 외모를 좋아합니다.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성형 수술을 하러 한국을 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방송을 봤습니다. 성형 수술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게 된 선

수들의 여러 얼굴이 큰 전광판에 나란히 떴습니다. 아나운서가 선수들의 어머니들한테 자신의 자녀를 가려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아무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고 망연자실한 어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완벽한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영화배우 유해진을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멋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뛰어난 연기 실력을 가진 그를 배우로 인정했고 많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잘생긴 배우 못지않은 인기를 받는 그를 보면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말자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도 완벽한 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중국, 어느 나라 사람 할 것 없이 성형 수술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히 말

합니다. 대대손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특별한 외모를 소중히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고 성형 수술을 해서 얻은 외모보다는 좋은 인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도 오늘 이후 조금 더 자신에게 충실하고 마음의 내면을 가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조선동의어사전

리현태 북한 사람

북한에서 쓰는 우리말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본래 제목은 「조선어동의어사전」으로 1990년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입니다. 글쓴이는 리현태입니다.

우리말에는 단어의 뜻이 비슷한 단어들이 아주 많이 있을 뿐 아니라 뜻이 꼭 같으면서도 그 의미에서나 단어들이 합쳐지는데서 서로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어를 차례로 정리하고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그것을 쉽게 쓸 수 있는 사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일러두기**

이 <조선동의어사전>은 말소리가 서로 다르지만 뜻이 같거나 비슷한 어휘와 표현들을 따로 묶어 편찬한 작은 언어학사전입니다.

ㄱ

거북하다 [형] 계면쩍고 어색하다.

무엇하다 미안하거나 난처하고 어딘가 거북하다.(입말체) //말하기가 매우 무엇해서 망설이다.

뭇하다 《무엇하다》의 준말.(입말체) ※→딱하다, 미안하다, 멋적다

거절하다 [동] (요구나 의견, 주는 물건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다. //요구를 ~

잘라매다 (어떤 요구나 청을) 한

마디로 딱 거절하거나 더 말못하게 막아치우다. //단호하게 ~

· 잘록할 정도로 졸라매다.

거부하다 거절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다. //요구를 ~ ※→반대하다

거짓말 [명]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

거짓소리 《거짓말》을 달리 이르는 말.

거짓부리 《거짓말》의 뜻을 속되게 생활적으로 이르는 말.

깡포 《거짓말》이나 《허풍》을 포에 비유하여 속되게 이르는 말. (입말체) (→허풍)

대포 《깡포》를 달리 이르는 말.(→허풍)

· 바퀴가 달린 큰 포를 두루 이르는 말.

거짓불 《거짓부리》의 준말.(입말체)

헛말=거짓말.(입말체)

· 빈말이나 헛소리. →빈말 ※→허풍, 빈말, 흰소리

거짓말쟁이 [명]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대포쟁이 《거짓말쟁이》나 《허풍쟁이》를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허풍쟁이)

깡포쟁이 《대포쟁이》를 힘주어 달리 이르는 말. (→허풍쟁이) ※→허풍쟁이, 빈말쟁이

거의 [부]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

거의거의 《거의》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거지반 절반이상 거의.(입말체)

거진=거의.(입말체)

거반 《거지반》의 준말.(입말체)

거칠다 [형] 차근차근하지 못하고 막되고 산만하고 세련되지 못하다. //성미가 ~, 말씨가 ~

· 바탕이 곱거나 부드럽지 못하고 꺾꺾하다. //살결이 ~ →꺾꺾하다

· 천의 발이 굵고 성기다. //거칠게 짠 천

· 가루나 모래알 같은것의 알이 굵다. //가루가 ~

· 험상궂고 사납다. //늦가을의 거친 바람.

설피다 거칠고 서투르다. //숨씨

가 ~

- 사이가 배지 않고 뜨다.
- 내굴, 안개 같은것이 약하다.

막되다 말이나 행동이 거칠고 나쁘다. //막된 성격, 숨씨가 ~

- 말이나 행동이 레절도 경우도 없이 사납다. →막되다

덜통하다 (성질, 행동 같은것이) 찬찬하고 깐깐하지 못하다. / 《에이 구 자식두, 어찌면 이렇게두 덜통하단말이냐.》

덜통스럽다 (성질, 행동 같은것이) 덜통한데가 있다.

데설데설하다 (성질이) 걸걸하고 꼼꼼하지 않다. //성미가 ~

투박하다 (말, 행동 같은것이) 거칠고 세련되지 못하다. //투박한 숨씨

- 생김생김이 다루기에 불편하고 거칠고 무겁다. //투박하게 생기다

투박스럽다 투박한데가 있다.

투박지다 《투박하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거침없이 [부] 걸리거나 막히는 것이 없이.

그침없이 그치지 않고 련달아.

//~ 흐르다

막힘없이 막히는것이 없이. //~ 내려읽다

걱정 [명] 마음을 놓지 못하고 속을 태우는것. (걱정하다)

근심 걱정스러운 마음.

상심 《몹시 자신의 마음속을 태우는 근심》을 이르는 말. //~에 잠기다(상심하다)

시름 마음에 걸리는 걱정과 근심. //~을 놓다, ~에 싸이다, ~을 덜다, ~에 잠기다

수심 속깊이 잠기는 근심. //~에 잠기다, ~이 어리다

한시름 늘 마음에 걸리는 큰 근심과 걱정으로 되는것.(주로 《한시름을 놓다》의 결합으로 쓰인다.)

우려 다른 그 무엇이 잘 안될가봐 념려하는것.(우려하다)

근심걱정 《근심과 걱정》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환 언짢은 일이 생겨서 하게 되는 걱정.

위구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

음. ※→고민

걱정하다 [동] 마음을 놓지 못하고 속을 태우다.

· 마음을 놓지 못하고 보살피다.
(넘려하다.)

근심하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마음속을 몹시 태우다.

상심하다 몹시 자신의 마음속을 태우면서 걱정하다.

우려하다 그 어떤 상서롭지 못한 것이 있어 근심하고 걱정하다.

속(을) 태우다 《걱정하다》를 보다 강조하여 이르는 성구.

· 남의 마음을 안타깝게 좋아들게 하다.

위구하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다.

걱정스럽다 [형]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불안스럽다.

근심스럽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이 매우 불안스럽다.

시름스럽다 근심되고 걱정되는데가 있다.

불안스럽다 마음이 놓이지 않고 조마조마한데가 있다.

· 소란하고 험악한데가 있다. //불

안스럽게 떠들다

불안하다 편안치 않게 마음이 놓이지 않고 조마조마하다. //불안한 마음

안심찮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안심찮은 기색 ※→걱정어리다, 조마조마하다

걱정어리다 [형]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드러나 있다.

시름겹다 근심과 걱정에 싸여있다. //시름겨운 얼굴

수심(이) 지다 근심하는 기색이 나타나 보이다. //수심진 얼굴

수심어리다 근심하는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있다. //수심어린 눈동자 ※→걱정스럽다, 조마조마하다

건강하다 [형] 몸에 아무런 탈이 없이 튼튼하다.

건강하다 몸이 건강하고 활기차다. //건강한 몸, 건강한 로인

정정하다 (웃어른의) 기력이 좋고 건강하다. ※→튼튼하다, 든든하다

건달 [명] 일을 하기 싫어하고 빈둥빈둥 놀고먹기를 좋아하며 게으름을 부리는것 또는 그런 사람.

//~을 부리다, ~을 피우다

· 다 써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 →빈털터리

알건달 《알짜건달》이라는 뜻으
로 《건달》을 속되게 이르는 말.
(→빈털터리)

백수건달 아무것도 없이 놀고먹
기를 좋아하는 알짜건달.

· 돈이나 물건을 가진것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 →빈털터리

건달군 건달을 잘 부리는 사람.

건달뱅이 《건달군》을 알잡아
이르는 말.

건방지다 [형] 저 혼자 잘난체하
면서 주제넘다. //태도가 ~, 건방진
소리, 건방진 행동

거만하다 저만 켜체하고 건방지
다.

거만스럽다 드러나 보이는 태도
가 건방지다.

교만하다 겸손하지 못하고 잘난
체하면서 건방지다. //교만하게 행
동하다

교만스럽다 보기에 교만한데가
있거나 매우 교만하다.

태깅스럽다 보기에 교만한 태도
가 있다.

주제넘다 말이나 하는것이 자기
치지에 지나쳐서 건방진 태도가 있
다. //주제넘은 소리를 하다.

오만하다 태도나 행동이 보다 밋
게 건방지고 거만하다. //오만한 행
동

오만스럽다 거만하고 건방진데가
있다.

오만무례하다 태도나 행동이 몹
시 오만하고 례의가 없고 막되다.

거들먹지다 거드름스럽게 함부로
거들거리는 티가 있다.

거드름스럽다 거드름을 피우는
태도가 있다. //거드름스러운 걸음,
거드름스러운 말투

방자하다 어렴성없이 건방지다.
//웃사람도 몰라보고 제멋대로 방자
하게 굴다.

방자스럽다 보기에 방자한데가
있거나 매우 방자하다. ※→경솔하
다, 거드름(을) 부리다

건전하다 [형] 사상이나 행동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상태에

있다. //건전한 사상, 생활이 ~

· 병이나 탈이 없이 건강하고 온전하다. //건전한 몸

건실하다 사상이나 행동이 건전하고 진실하다. //건실한 사람, 건실한 행동

· 몸이 건강하고 실하다. //건실한 몸

건실하다 사상이나 행동이 흐리터분하지 않고 확고하며 철저하다. //건실한 사상, 생활이 ~ ※→결백하다

겉싸다 [형] 일숨씨나 행동이 기운차고 날쌔다. // 일손이 ~

겉쌔스럽다 일숨씨나 행동이 다부지고 씨원씨원하다. //일숨씨가 매우 ~

겉싸다 일숨씨나 행동이 씨원씨원하고 기운차다.

검다 [형] 석탄이나 먹물의 빛과 같다.

· 빛이 어둡고 칙칙하다.

· 속이 음흉하고 엉큼하다. →음흉하다.

검다 빛같이 좀 새뜻하고 짙은 맛

이 나게 검다.

검다 《검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검다 《검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거멓다 빛같이 뿌연 기운이 도는 듯하게 검다. //거먼 구름

가맣다 빛같이 새뜻한 맛이 나면서 짙게 검다. //가만 눈동자

· 아득하다. //가맣게 멀다 →아득하다

꺼멓다 빛같이 보다 진하게 검다.

까맣다 빛같이 보다 진하게 검다. ※→시커멓다, 거무스름하다. 거무레하다, 거무테테하다, 거무죽죽하다, 거무직직하다, 거무땡땡하다, 거무테테하다, 거무축축하다, 거뭇거뭇하다, 가무잡잡하다, 거무접접하다, 거무숙숙하다, 까무스름하다, 꺼무스름하다, 가무스름하다

검정 [명] 검은 빛같이나 물감.

검장 《검정》과 뜻이 같은 짙을 이루는 말로서 보다 새뜻함을 이르는 말.

검정 《검정》을 힘주어 이르는

말.

감장 《감장》을 힘주어 이르는 말.

까망=감장. (입말체)

꺼멍 《까망》과 뜻이 같은 짝을 이루면서 보다 칙칙함을 이르는 말.

검정개 [명] 털빛이 검은 개.

검등개 《검정개》를 달리 이르는 말.(입말체)

검둥이 《검정개》를 보다 귀엽게 이르는 말.

검질하다 [형] 성질이나 행동이 감사납게 질기다. //검질기게 달라 붙다

끈질기다 끈기있게 질기다.

끈질기다 《끈질기다》와 뜻이 같은 짝을 이루면서 보다 잘고 작은 대상의 성질이나 행동의 성격을 이르는 말.

끈덕지다 끈기있고 꾸준하다.

지긋다 《검질기다》를 보다 강조하여 이르는 말.

· 시끄럽고 귀찮게 구는것이 몹시 질기고 끈지다. //지긋게 조르다

· 공연히 억울한데가 있다.

· 날씨 같은것이 개운하거나 산뜻하지 못하고 구저분하다. //지긋은 날씨 →구질다.

집요하다 《끈덕지다》를 보다 강조하며 주로 부정적대상과 그의 행동에 대한 상태를 이르는 말.

추근추근하다 성질, 태도, 하는짓 등이 알미울 정도로 몹시 검질기고 끈덕지다.

· 동사로도 쓰인다.

주근주근하다 성질, 태도가 은은하고 끈덕지다.

· 일 같은것을 처리하는 품이 느릿느릿하다.

· 동사로도 쓰인다.

추근스럽다 추근추근한데가 있다.

주근스럽다 주근주근한데가 있다.

초근초근하다 끈지게 끈끈하거나 검질기다.

질기다 성질이나 행동이 끈지고 검질기다.

· 물건이 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견디는 힘이 많다.

· 겁사리 죽지 않고 끈덕지게 목숨이 붙어있다.

지긋지긋하다 《검질기다》를 보다 강조하여 이르는 말.

· 생각만 하여도 진저리가 나도록 몹시 괴롭다. //지긋지긋한 노예살이 →괴롭다

· 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몹시 잔인하다.

검은구름 [명] 비를 머금은 검은 색깔의 구름.

· 침략, 압박, 착취 등으로 불행하거나 고통을 가져오게 하는 세력 또는 그러한 분위기.

비구름 비를 머금은 어두운 구름.

매지구름 비를 머금은 짙은구름.

겁 [명]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

· 무섭고 두렵게 여기다.

· 걱정하여 주저하다.

공포 두려움이나 무서움.

공포심 무서움을 느끼는 마음.

무서움 무서워하는것 또는 무서운 느낌. //~을 느끼다.

두려움 무서워 게름직하게 여기

는 것.

겁심 겁을 잘 내는 마음. //~을 먹다.

겁나하다 [동] 겁이 나서 두려워하다.

겁(을) 내다 《무섭고 두렵게 여기다》를 이르는 성구.

겁(을) 먹다 《무섭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품다》를 이르는 성구.

겁(에) 질리다. 《겁을 잔뜩 먹어서 기운을 차리지 못하다》를 이르는 성구.

무서워하다 위험이 닥쳐올가봐 불안해하다.

두려워하다 위험이 닥쳐올가봐 몹시 불안해하다.

- 다음 호에 이어갑니다. -

<차세대>와 <신역사>와 <미래>

제 나라 말과 남의 나라 말을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남의 나라 말이라고 잘 알면서도 제 나라 말은 안 쓰고 남의 말을 쓰고 싶

바른 말 바른 글

이오덕 우리모임 창립위원

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국민의 거의 전부가 되어 있다고 할 때, 그런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되겠는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될 것은 뻔하다. 아니, 벌써 문화의 식민지가 되었기에 제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제 것은 버리고 남의 것만 쳐다보고, 남의 말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꼭 그렇게 되어 있다. ‘관’이고 ‘민’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말을 버리고 있는 보기는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여기서는 최근에 유행처럼 쓰고 있는 말 몇 가지를 들어 보겠다.

◆차세대 지금 어디에 있는가(한겨레, 91.6.26 제목)

나는 이 신문 제목에 나오는 ‘차세대’란 말을 ‘차를 많이 타는 사람들의 세대’라고 생각하여 기사를 읽었더니 그게 아니고 ‘다음 세대’란 뜻으로 쓴 중국글자말이었다. 그 뒤로 이 ‘차세대’란 말이 신문에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어리둥절했다.

◆차세대 종합통장

신문뿐 아니고 은행의 저금통장도 이런 이름을 붙여 놓았다. 이 경우에도 만약 이 말을 우리말로 썼다면 ‘차를 많이 타는 세대’란 뜻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차기 대통령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모두 쓰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은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런 문제는 제쳐두고, 왜 ‘다음’이란 우리말을 버리고 ‘차기’라는 말을 쓸까? 아이들도 다 아니 ‘다음’이라는 우리말을 쓰면 대통령의 위신이 깎이고 권위가 없어지는가? 어느 신문이고 방송이고 ‘다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것이 참 괴상하고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 역사의 벽이다.

다음은 ‘신(新)’이란 걸 쓰는 문제다. 우리에게 <새>라는 말이 있다. 새색시·새신랑·새집·새교실·새나라 …, 이렇게 쓴다. 이런 ‘새-’를 ‘신-’으로 바꾸어 ‘신색시’ ‘신신랑’으로는 쓰지 않는다. 그런데 ‘신-’이란 것을 꼭 써야 할 경우가 있을까? 해방 바로 뒤에 ‘신천지’란 잡지가 있었고, ‘신세계 백화점’은 지금도 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새천지’, ‘새세계’ 하면 더 좋다. 이밖에 지금

‘신-’ 무엇이라고 하는 어떤 말도 ‘새-’라고 써서 안 될 말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워낙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모조리 없애자는 욕심은 안 부리겠다. 다만 새 말을 쓰게 될 때는 깨끗한 우리말을 썼으면 좋겠다. ‘신도시’라고 하지 말고 ‘새도시’로 쓰고, ‘신인’이라 하지 말고 ‘새사람’이라 하는 것같이 말이다.

그런데 요즘 와서 ‘신’이 자주 나오는데, 이 ‘신’도 남의 글자 ‘新’으로 쓰는 것이 멋으로 유행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든다.

◆新세대·新생활·新XX <新한국형 김장독 냉장고 탄생. 냉장고의 新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지난 1월 19일 어느 일간신문의 한쪽 전체를 차지해서 나온 어느 회사의 광고문이다. 온통 ‘新’ 자투성이다. 이래야 광고문이 되고, 근사한 상품같이 보이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한심하다고 할 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新한국형’이란 말이

예사로 안 읽힌다. 이 ‘新한국’이란 말이 아무래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자유당에서 한 달 반에 걸쳐 끊임없이 신문에 광고했고, 그 뒤에도 새로 들어설 집권세력이 제 얼굴처럼 내걸고 있는 말이고 글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상품 광고문이다가 일부러 ‘新’자로 철갑을 해놓은 것이 무슨 멋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흥내로 아침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하나 더, <미래>란 말이 있다.

◆당신의 한 표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것도 지난 선거 때 신문마다 자주 나오던 광고문인데 공보처에서 낸 것이다. ‘앞날’이란 말을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데 행정관청이고 학교고 신문 잡지고 어디에도 ‘앞날’이란 우리말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

더구나 요즘은 신문이고 방송이고 이 ‘미래’란 말이 쏟아져 나온다.

정부에서는 올해를 ‘책의 해’라고 정해서 ‘선포식’까지 했다. 사람들에게 책을 읽히도록 하려는 뜻은 좋은데 표어가 잘못되었다.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신문이고 잡지고 텔레비전이고 거리의 현수막이고 날마다 이 표어를 보고 읽는 동안에 그만 국민학생들뿐 아니라 유치원생들까지 ‘앞날’이란 말은 쓸 줄 모르고 ‘미래’를 쓰게 될 판이다.

한 해 뒤, 곧 이 ‘책의 해’가 지나간 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이(유치원생)가 주고받는 말을 생각해 본다.

▶ 아버지 : “너, 앞날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 아들 : “아빠, ‘앞날’이란 언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한 언어예요?”

▶ 아버지 : “미래라는 뜻을 가진 말이란다.”

▶ 아들 : “올 라잇! 난 미래에 위대한 문학을 기필코 전취하겠어

요.”

맙소사! 이런 아이들이 문학가가 되어서 우리 모국어가 어찌 되겠는가?

물론 이 주고받는 말은 좀 부풀린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부터 “너 미래에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고 싶으냐?” 하고 물으면서 어린 자식이 또 어렵고 유식한 말로 대답하는 것을 보고 흐뭇해하고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

구태여 올해 정부와 신문과 방송과 출판사들이 ‘미래’라는 말을 앞장서서 퍼뜨리지 않아도 벌써 오래 전부터 우리말과 글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고, 우리글은 남의 나라 말과 말법으로 엉망이 되어 있다. 이런 판세에 말과 글을 바로잡으려는 일은 하지 않고 오염된 글만 읽혀서 어찌 되겠는가?

또 책을 제대로 읽는 국민이 되게 하려면 몇 가지 잔치 분위기를 만드는 행사를 벌이거나 구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잠시 얼마쯤은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정말 책 읽기를 즐기는 국민이 되게 할 수는 결코 없다. 책을 좋아하는 국민이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교육하는 방법을 아주 새롭게 해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밤낮 교과서와 참고서만 가지고 읽고 쓰고 외우게 해서 책만 보면 지긋지긋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학교를 졸업한 뒤에 책을 읽고 싶어 하겠는가?

모든 것을 백성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민주주의도 되고 책도 읽게 된다. 무엇이든지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한 가지도 되는 것이 없다. 말과 글이 병드는 것도 그렇다.

<와해>와 <붕괴>

지난날 교단생활을 했을 때, 학년 초마다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해서 적어두는 장부에 ‘초가’ ‘와가’란 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초가’란 말은 누구나 다 알겠는데, ‘와가’란 말은 그때 생각에도 참 딱하다

는 느낌이 들었다. 왜 ‘기와집’이란 우리말을 쓰지 않고 이런 괴상한 말을 쓰는가? ‘와가’ 이건 우리말이 아니다.

‘초가’는 어떤가? ‘초가’도 중국글자로 된 말이지만 오랫동안 우리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널리 써서 ‘와가’와는 달리 모두가 다 아는 우리말이 되었다. 너와집은 있어도 풀집이란 말은 없다. 벚집으로 이었다고 해서 ‘벚집’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벚집’과 뒤섞이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에서 글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초가라 아니하고 무엇이라 말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중국의 한자가 들어오기 전에도 벼농사를 짓고, 벚집으로 지붕을 이었을 것인데 어떻게 말했는지 모른다. 아무튼 지금은 초가요 초가집이다.

그런데 ‘초가’가 옳은가 ‘초가집’이 옳은가? 중국글자로 된 ‘초가(草家)’에 이미 집이란 뜻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집’을 덧붙이는 것은 군더더기가 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글자를 써서 그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글자

보다 먼저 말이 있었고, 또 중국글자를 쓰게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말로 서로 뜻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초가’라면 얼른 그 뜻이 잡히지 않는 수가 있어 ‘집’을 더 붙여서 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되니, 이래서 ‘초가집’이 된 것이다. 이것은 처가-처갓집, 외가-외갓집도 마찬가지다. 해변-해변사, 역전-역전앞도 이런 자연스런 말하기 심리에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초가’ ‘외가’ ‘처가’를 표준으로 된 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초가집’ ‘외가집’ ‘처갓집’을 표준말로 함이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어느 사전도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초가집’에는 ‘초가’로만 써서 ‘초가’를 찾아보도록 해 놓고, ‘초가’쪽에 자세한 풀이를 해 놓았다. 이것은 우리말 사전들이 모두 중국글자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해변’은 ‘바닷가’라고 하면 되니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말을 버리고 남의 나라 글자말을 쓰니까 ‘해변가’란 괴상한 말까지 나온다. ‘역전’도 ‘역전앞’도 쓰지 말고 ‘역앞’이라든

지 ‘정거장앞’이라 해야 옳다.

그럼 다시 ‘와가’로 돌아간다. ‘와가’의 ‘와’는 ‘기와’란 말의 중국글자(瓦)를 읽는 소리다. 우리말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와’자 소리 문제인데, 중국 사람들이 ‘瓦斯’라 쓰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써서 ‘가스’라 읽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사’라고 하여 괴상한 소리로 읽어 병신 말을 만들었다. 탄산와사, 와사 등... 이런 말을 썼지.

지금은 와사고 와사등이고 안 쓰지만, 이 ‘와’자가 들어간 중국글자 말은 아직도 널리 쓰인다. 가령 ‘와해’ 같은 말인데, 이것이 ‘와사’와는 달리 중국글자의 뜻이 들어 있다고 해도 우리말이 될 수 없는 엉뚱한 중국글자 소리로 된 말이라는 점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다음은 모두 신문기사 제목이다.

◆국민당瓦解직면.(동아 93.2.13)

◆국민당瓦解국면.(한국 93.2.14)

◆국민당 와해에 허탈한 <蔚山>
(중앙, 93.2.14)

◆瓦解 임박! 國民黨 이모저모(같은)

이렇게 모든 신문이 ‘와해(瓦解)’

란 말을 썼다.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신문들도 다 같은 말을 썼을 것이다. 거의 모두 중국 글자로 ‘瓦解’를 썼는데, 우리 글자로 쓴 것도 있다.

◆國民黨와해직전 (중앙, 93.2.13)

◆國民黨와해위기 (한겨레. ↑같은)

이미 우리 글자로 쓸 바에는 왜 우리말로 쓰지 못하고 이런 병신 같은 남의 나라 글자 말을 쓰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와해직전’은 ‘곧 무너질 듯’ 이라면 되고, ‘와해위기’는 ‘무너질 판’이라면 얼마나 읽기 좋고 알기 쉬운가.

아마 방송도 새소식을 알리는 시간에 우리말은 안 쓰고 모두 ‘와해’라고 했을 것이다. 글 따라 말이 병 들고, 말 따라 마음이 병드는 까닭이 이런가.

‘와해’와 비슷한 말에 ‘붕괴’가 있다. 역시 신문기사 제목이다.

◆商街 아파트 붕괴 14명 死亡(중앙 93.1.7)

◆商街 불 붕괴 14명 死亡(동아 93.1.7)

◆아파트 불 붕괴 14명 사망(한겨레 93.1.7)

◆아파트 붕괴 27명 사망(같은)

이렇게 모조리 ‘붕괴’다. ‘무너진 다’는 말을 신문기자들은 모르는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말을 쓰면 신문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보는가?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우리말을 쓰면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기사썸이냐 나도 쓰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사를 쓰는 사람이나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권위를 세우겠는가?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위의 기사 제목에서 ‘불 붕괴’란 말이 나온다. 나는 처음 이것을 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묘하게도 두 신문에서 똑같이 이 괴상한 말을 썼는데, 한 신문은 뒤에 나오는 판에서 고쳤다.

‘사망’(死亡)도 ‘죽어’란 우리말을 써야 한다. 법률의 조문은 중국글자 말투성이다.(중국글자말투성이란 것은 일본말투성이란 것이다.) 법률 말도 우리말로 고쳐 써야 하겠지만 신문의 글은 법률 조문도 아니다. 어째서 이렇게 ‘사망’ ‘死亡’만 쓸까?

이제 법률말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쓴다고 하는데, 관청에서 쉬운

말을 쓰게 되면 그때 가서야 신문이고 방송들이 관청 따라 우리말로 바꿔 쓰는 꼴이 될 것인가?

지금 여기 든 말은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수천 가지 말 가운데 겨우 두세 가지를 든 것뿐이다.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하는 말들

신문이나 책을 읽다가 보면 무슨 말인지 선뜻 머리에 안 들어오거나, 잘못 알게 되거나, 한참 생각해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말이 가끔 제목에서부터 나온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본문을 한참 앞뒤로 대강이라도 훑어 읽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 뜻을 알게 되는데, 이런 글을 쓴 사람이나 이런 인쇄물을 만든 사람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가 띄어쓰기를 잘못 해서 일어나는 수도 있고, 서양말법을 마구 범벅으로 써서 생겨나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안 써도 되는(쓰지 말아야 하는) 중국글자말을 쓰기 때문이다.

◆대선모의투표(한겨레 92.11.20
제목)

이것이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
다가 한참 사진과 글을 살펴본 다음
에야 ‘대선 모의투표’란 말임을 알았
다.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것은 틀린
글, 엉뚱한 글을 쓰는 것이 된다.

◆끓으면 관상동맥질환의한 사망
위험 50% 감소(새건강 92.7.11 ‘흡
연’ 관계 기사 제목)

이 신문 제목에 나오는 ‘관상동맥
질환의한’이란 말도 알 수 없어 한참
살펴본 다음에야 ‘관상동맥질환 의
한’이란 말임을 알아냈다. ‘의한’은
또 일본식 말이다. ‘에 따른’이란 우
리말을 써야 한다.

◆80병 상이 상 병원 ‘감염관리위’
설치(새건강 92.7.11)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기사 내용을 읽어 보니 ‘80병상 이
상 병원...’이란 말을 잘못 띄어 쓴
것이다.

◆교수실에 투구·劍 매단체 연구
활동(중앙 93.3.12 ‘劍客 물리학자
李準澤 교수’ 기사 제목)

여기 나오는 ‘매단체’를 나는 처
음에 ‘每團體’ 곧 ‘단체마다’란 뜻으
로 읽었다. ‘체’와 ‘체’가 다른데도
그렇게 읽혔다. 기사를 읽어 보니
‘매단 체’였다.

◆지하철부착 말지 광고 안기부
관련 문안 삭제(한겨레 92.11.1 제
목)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기사를 읽
어 보니 ‘말지’가 아니고 ‘<말>잡지’
였다. ‘지하철부착’도 ‘지하철에 부
친’이라 써야 한다.

◆어린이발작증세 게임기와 무관
(새건강 93.2.6 제목)

이 제목에 나오는 ‘게임기’란 말
은 이 무렵에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무슨 말인지 어
리둥절할 것이다. 영어와 중국글자
말을 잡탕으로 한 괴상한 말이다.

‘놀이기계’나 ‘놀이기’ 아니면 ‘오락 기계’나 ‘오락기’란 말이라도 썼으면 좋겠다. 대관절 ‘놀이’라고 하면 될 것을 ‘게임’이라고 하는가? 아이들도 요즘은 ‘오징어 놀이’라고만 하지 않고 ‘오징어 게임’이라 말하게 되었다. (운동경기를 할 때도 ‘게임’이란 말을 쓰지 말고 ‘경기’라고 하면 된다.)

◆‘김여삼 군부’ 구축 신호탄(한겨레 93.3.9 제목)

나는 이 제목에 나온 ‘구축’이란 말을 처음에 ‘驅逐’ 곧 ‘몰아내기’ ‘내쫓기’란 뜻으로 읽었는데, 다시 잘 보니 ‘構築’ 곧 ‘쌓아올리기’ ; ‘만들기’란 뜻으로 쓴 말이었다. ‘만들기’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헛갈리기 쉽고 어려운 말을 쓸까?

‘병충해 구축’이란 말도 ‘병충해 몰아내기’나 ‘병벌레 내쫓기’ ‘병벌레 없애기’와 같이 써야 한다. ‘구축’은 ‘세력 쌓아 올리기’나 ‘세력 만들기’이지.

◆鄭후보 票분산에 李후보 辛勝(동아 93.3.12 제목)

이 ‘辛勝’이란 글자를 읽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우리 글자로 ‘신승’이라 써도 문제가 된다.

◆ 이 대표는 1차투표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2위를 차지한 김상현 최고위원과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2천 8백 95표를 얻어 2천 5백 34표를 얻은 김 최고위원에 3백 61표 차이로 신승했다(한겨레 93.3.12)

의무교육만을 마친 우리 국민들이 이 ‘신승’이란 말을 알아낼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는 ‘겨우 이겼다’고 하지 아무도 ‘신승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신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글에 중독이 들어서 말까지 괴상한 글말을 하는 병신이 된 것이지. 글을 쓰는 사람은 그 머리속에 들어 있는 글말로 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겨레의 말로 글을 쓰려고 애써

야 한다.

◆**보건지소 비새고 하자 투성**(주간홍성 93.2.8 제목)

이 제목에 나오는 ‘하자’도 우리말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말이다. ‘흠’이란 우리 말을 왜 안 쓰는가? (‘투성’은 ‘투성이’라 써야 하고, ‘비새고’도 ‘비 새고’라고 띄어 써야 하겠다.)

◆**대두유**(92.12.29 각 신문에 난 제일제당 ‘선물세트’ 전면광고)

이것은 ‘콩기름’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써 놓으면 물건이 시원찮게 보여서 잘 안 팔리고, 어려운 말, 알 수 없는 말로 써 놓으면 잘 팔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상품 이름을 붙였다면 우리 국민을 바보로 놀리는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나 기쁜 마음으로 선물할 수 있는 레일로드가 유가지로 탈바꿈을 합니다**(Railroad 93.2 광고 제목)

여기 나오는 ‘유가지’도 우리말이 될 수 없다. ‘책값을 받는 잡지’ 하면 되지. 이 책은 책 이름부터 우리 말, 우리 글자로 써야 할 것이다.

◆**敎育界고민 ‘公開논의’에 의의**(동아 92.8.26 제목)

이것은 ‘교육부 -교총 첫 정기교섭결산’을 말한 기사 제목이다. ‘의의’란 말이 읽기도 거북하고 뜻도 선뜻 머리에 안 들어온다. 이런 말은 우리말에서 아주 없애야 한다. 여기서는 ‘뜻있어’ 하든지 ‘보람’이라고 나 쓸 말이 아닌가 싶다.

◆**방화보다 외화 선호하는 관객들**(새건강 92.10.31 제목)

여기 나오는 ‘방화’, ‘외화’ 같은 말도 다른 말과 헷갈리게 하니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 영화’, ‘외국영화’라고 해야지. 이 제목 전체를 ‘우리 영화보다 외국 영화 좋아하는 구경꾼들’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나. ‘새건강신문’은 신문기사에서 쓰는 말부터 부디 건강한 우리말을 썼으

면 좋겠다.

지난 때를 나타내는 우리말

우리말의 움직씨(동사)에서 때를 나타내는 꼴은 가령 <먹는다>란 말이면 기본형으로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 세 가지가 있어서 지금과 지난 적과 올 적을 나타내고, 여기에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먹고 있다’, ‘먹고 있었다’, ‘먹고 있겠다’가 쓰이고 있다. 그럼씨는 기본형뿐이다. 이런 우리 말법을 없이 보고 지난 적을 나타내는 도움줄기(보조어간) ‘있’을 아무데나 함부로 쓴다든지, 겹으로 쓰는 것은 다른 나라 말법을 따라 써서 우리말을 짓밟는 것이 된다.

◆이 프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시간도 저녁 8시니까 시청률도 꽤 높을 것이다. 그런 만큼 좀 더 신중하게 프로를 제작했어야 했다.(동아 93.1.18)

여기 나오는 ‘제작했어야 했다’란 말은 늘 이런 글말을 쓰고 읽는 이들은 예사로 보아 넘길는지 모르지만 매우 어설픔게 느껴진다. 우리 말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움직씨 다음에 도움움직씨 ‘했다’가 올 때)는 앞에 나온 움직씨에는 ‘있’을 안 써야 하고 쓸 필요가 없다. 곧 ‘제작해야 했다’고 써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일본에 땅을 사놔야 했다. (한겨레 93.2.2 글 제목)

이것도 ‘사놔야 했다’가 아니라 ‘사놔야 했다’고 써야 된다.

◆고가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지만 / 서대문에서라도 좌회전을 했어야 한다./ 직진을 한 것이 잘못이었다.(중앙.92.12.23 시의 한 대문)

여기 나오는 ‘했어야 한다’도 ‘있’을 도움움직씨 쪽에 쓰는 것이 옳다. ‘해야 했다’이렇게. 시일수록 살아 있는 우리말을 써야 할 것이다.

◆장부를 조작해 회사공금을 빼돌렸더라도 이 돈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양 92.12.23)

이 기사문에 나오는 ‘빼돌렸더라도’는 잘 썼다. 흔히 이런 경우에 ‘빼돌렸어도’라고 쓰는데, 이것은 우리 말법이 아니다.

(위의 보기 글에서 ‘조작해’는 ‘꾸며 만들어’라고 쓰는 것이 좋고, ‘사용한’은 ‘쓴’이라 해야 되고, ‘않는 이상’은 일본식 말이니 ‘않는 바에’는 ‘않는 다음에는’ ‘않을 때에는’ 이런 따위로 써야 한다)

그런데 이 기사문의 제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장부조작 公金 빼돌렸어도 私用 증명 못하면 無罪”

이와 같이 ‘빼돌렸어도’라고 쓴 것은 잘못되었다. 기사 본문에서 쓴 대로 ‘빼돌렸더라도’라고 써야 우리 말이 된다. 제목으로 낸 글을 겹따옴표로 했는데, 기사를 끝까지 읽어도

누가 꼭 이런 말씨로 말했다든지, 판결문이 이런 말씨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다. 결국 기사를 쓰는 사람의 글 버릇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도 본문 기사에서는 바르게 쓰면서.

◆그러나 이 모든 질문과 답변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보다 먼저 법정에서 있었어야 할 曹 당시 총장의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93.3.23)

이 글에 나오는 ‘서 있었어야’는 누가 보더라도 ‘서 있어야’로 써야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글을 쓰는 이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있’을 자꾸 넣어서 어설픈 말을 만들기 좋아할까? 다음은 신문 광고란에 자주 보는 글이다.

◆“나이를 먹었어도 젊은 사람처럼 살고자 하시는 분과 젊었어도 나이 든 사람과 같은 분을 위한 종합 활력 영양제” -게리아트릭 파마톤
이 광고 글에 나오는 ‘먹었어도’

‘젊었어도’를 ‘먹어도’ ‘젊어도’로 고쳐서 읽어 보라. 훨씬 더 시원스럽게 읽힌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글에 곱따옴표를 한 것은 다만 눈길을 끌기 위한 것인 듯함)

이렇게 ‘었’을 아무데나 자꾸 넣어 어설픈 글말을 만드는가 하면, 한편 그것도 마음에 덜 찼는지 ‘었’을 겹으로 해서 ‘었었’을 쓰게도 되었는데, 이것도 또 무슨 돌림병처럼 번져서 소설에서도 신문기사에서도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

◆ “기대가 컸었는데....

文民정부 <흠있는 公職者>속출
市民 허탈 (동아 93.3.4 제목)

이 두 줄로 된 제목에서 첫줄에 나온 “기대가 컸었는데”는 이 신문을 펴 보는 누구의 눈에도 다 들어가도록 첫머리에 아주 큼지막한 글자로 나와 있다. 그래서 잘못된 서양 말법이 우리말을 내쫓고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이 제목 역시 곱따옴표를 했지만, 기사를 끝까지 읽어도 누가 이런 말투로 말했다고는 안 되

어 있다.

◆당시 어느 사학은 10년 동안에 재산이 3만 배나 늘면서 빼돌린 돈으로 음식점과 부동산 확보도 모자라 대기업을 매수, 재벌의 기틀을 마련한 사실이 폭로되고도 했었다. 그런 비리의 수단은 물론 재단주도의 부정입학, 합격자를 떨어뜨리고 돈 받고 학생 넣기, 청강 및 입교권을 재단하수인격인 학생 주먹패들에게 보너스로 주기, 졸업장 팔아먹기 등 온갖 비리가 횡행했음이 폭로됐었다. 당시 특감대상에 올랐던 학교 설립자및 총학장 겸직 교수들의 전횡을 사학비리의 근본요인중 하나로 봤던 5共정부에서는 사회정화 차원에서 설립자의 총학장 겸직 및 학사행정 간여를 금지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많은 거물급 교주총장들이 몰려났었다.(한국 93.2.10)

여기 따온 대문을 보면, 글월이 모구 4개인데 이 가운데 3개가 ‘었’을 겹으로 쓴 마침표로 맺어 놓았다. 이것을 모두 고쳐서 ‘했었다’는 ‘했

다’로, ‘폭로됐었다’는 ‘폭로됐다’나 ‘드러났다’로, ‘물러났었다’는 ‘물러났다’로 해 놓고 읽어 보면 어느 쪽이 우리말인지 누구나 환하게 깨달을 것이다.

(‘매수’는 ‘사들여’로 쓰는 것이 좋고, ‘폭로되기도’는 ‘드러나기도’로 쓰는 것이 좋다. ‘비리’란 말도 좀 더 쉬운 우리말로 쓸 수 없을까? ‘옳지 않은 일’ ‘비뚤어진 일’ 하면 좀 길러지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이 된다. ‘재단 주도의’는 ‘재단이 주도하는’ 하든지 ‘재단이 주로 끌어가는’ 하면 될 것이다. ‘등’은 ‘따위’로 쓰는 것이 옳고, ‘횡행했음’은 ‘제멋대로 끌고 다녔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가.)

문법을 지키지 않는 겹말들

미승우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란 책을 옮김.
국문학자이시며 학술 연구위원으로 교과서 연구를 하셨다.

박수를 친다 : ‘박수(拍手)’에 ‘친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손뼉을 치다’가 곧 ‘박수’이므로 그대로 ‘박수하다’이다. 국민 학교 교과서에서는 ‘박수하다’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박수를 친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바른 말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밝은 광명 : ‘광명(光明)’이 ‘밝은 빛’이므로 ‘밝은 광명’은 비문법적이다. ‘밝고 명랑하다’로 써야 한다.

방랑하며 돌아다니다 : 고등학교 1학년 국어의 <회곡과 시나리오>에 나오는 비문법적 말이다. ‘방랑(放浪)’의 뜻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님’이므로 그 말에 다시 ‘돌아다니다’를 붙이면 안 된다.

방치 상태로 내버려 두다 : 1984

년 1월 4일, KBS 제1텔레비전의 <지금 평양에서는>에 나왔던 말이다. 우리나라의 문인에 이토록 어색하고도 졸렬한 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의 국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버려두는 것이 곧 ‘방치(放置)’이므로 이 말은 그대로 ‘방치 상태’ 또는 ‘내버려 둔 상태’를 써야 한다.

방치해 두다 : 이것도 그대로 ‘방치한다’나 ‘내버려 두다’의 어느 한 쪽을 써야 한다.

보는 견해 : 보고 깨닫는 것을 ‘견해(見解)’라고 한다. 또 보고 느낀 의견과 해석을 견해라고도 한다. ‘내가 보는 견지’와 함께 주의해서 써야 하는 말이다. ‘나의 견해는’ 또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은’ 이라고 하면 된

다.

볼 수 있는 가시광선 : ‘가시광선(光線可視)’ 자체가 ‘볼 수 있는 광선’이다. 볼 수 없으면 ‘가시광선’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이 말의 ‘볼 수 있는’이 군더더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한 : ‘유연(柔軟)’이 ‘부드럽고 연합’이라는 뜻이므로 그대로 ‘유연한’ 또는 ‘부드러운’을 써야 한다.

부르는 호명 · 부르는 호칭 : ‘호명(呼名)’이나 ‘호칭(呼稱)’의 ‘호(呼)’가 ‘부르다’의 뜻이다.

분명히 밝히다 : 이미 말한 ‘명백하게 밝히다’와 마찬가지로 쓰이고 있는 비문법적인 말이다. ‘분명히 하다’ 또는 ‘확실히 밝히다’를 쓰면 된다.

불과 ~밖에 되지 않는다 · 불과 ~ 지나지 않는다 : ‘불과(不過)’의 뜻은 ‘~에 지나지 않는다’이다. ‘따라서 그대로’, ‘지나지 않는다.’ 또는 ‘(다섯 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써야 한다.

불로 소득을 얻다 : 일부 국어사전의 풀이부터 틀린 말이다. ‘불로소득(不勞所得)’은 ‘일하지 않고 얻는 것’이다. ‘불로(不勞)’는 ‘일하지 않고’ 또는 ‘근로하지 않고’이고 ‘소득(所得)’은 ‘얻는 바’ 또는 ‘얻는 것’이다. ‘소득’에 벌써 ‘얻다’라는 말이 들어 있다.

사나운 맹견 : 사납기 때문에 ‘맹견’이라고 한다. ‘맹(猛)’이 ‘사납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애인 : ‘애인(愛人)’의 뜻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애인이라고 하는가? ‘사랑하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또는 그대로 ‘애인’을 써야 한다.

사이 구간 · 사이의 간격 : ‘구간’ 또는 ‘간격’만으로도 충분하다. 순수한 우리말을 쓴다면 ‘사이’이다.

산재하고 있다 : ‘산재(散在)’ 자체가 ‘흩어져 있다’이다. 이 말은 그대로 ‘산재하다’를 써야 한다.

새로 들어온 신입생 (신입사원) : 작년에 들어온 사람도 신입생이라

고 하는가? ‘새로 들어온 학생(사원)’이면 그만이다. 아니면 ‘신입생’이나 ‘신입 사원’으로 그만이다.

새 프로그램을 신설하다 : ‘신설(新設)하다’가 ‘새로 마련하다’이므로 여기서는 ‘새 프로그램을 마련하다’ 또는 ‘신설된 프로그램’,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

생질 조카 : ‘생질(甥姪)’이라는 한자말에 ‘조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누이의 아들’을 ‘생질’이라 하고 ‘딸’은 ‘생질녀’이다. 곧 조카이다. ‘질(姪)’이 ‘조카 질’이다. ‘생질 조카’는 옛날부터 시골 사람들이 많이 썼다.

서로 상담하다 · 서로 상의하다 · 서로 상통하다 : ‘相(서로 상)’이 붙는 한자말에는 ‘서로’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 ‘서로 의논(상의)하다’ 또는 ‘서로 통하다(상통)’를 쓰면 된다.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자를 빼고 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섞은 혼합물 : ‘혼합물(混合物)’ 자체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이루어

진 물건(물질)’이다. 이렇게 이미 뒤섞여 있는데 무엇을 또 섞어야 하는가? 그대로 ‘섞은 물질’ 또는 ‘뒤섞인 물건’, ‘혼합물’ 등을 써야 한다.

소급하여 올라가다 : ‘소급(遡及)’이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대로 ‘소급하다’ 또는 ‘거슬러 올라가다’를 쓰면 된다.

소득을 얻는다 : ‘일의 결과로 얻는 이익’이 ‘소득(所得)’이다. ‘소득’ 자체의 뜻은 ‘얻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익을 얻는다’라고 말해야 한다. ‘소득이 있다’는 결말이 아닌 훌륭한 말이다.

소문으로 듣다 : ‘전하여 들리는 말’이 곧 ‘소문(所聞)’이다. ‘들리는 바’이다. 따라서 이 말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또는 ‘소문에는’이라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소원 성취를 이루다 : ‘소원을 성취하다’이다. 목적인 바를 이루는 것이 곧 ‘성취(成就)’이다. ‘소원을 이루다’도 좋은 말이다.

소임을 맡다 : ‘맡은 바 직책’이

곧 ‘소임(所任)’이다. 따라서 따로 ‘맡다’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다.

수면을 자다 : 그대로 ‘수면하다’ 또는 ‘잠을 자다’이다.

수상받다 : 상을 받는 것이 ‘수상(受賞)’이다. ‘수(受)’가 ‘받다’의 뜻이므로 ‘수상받다’라고 하면 틀린다.

수입해서 들여오다 : ‘수입해 오다’이다.

수확을 거두다 : ‘수확(收穫) 자체’가 ‘거두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수확했다’ 또는 ‘거두었다’ 등을 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말 중의 하나이다.

슬픈 비극 : ‘기쁜 비극’도 있는가? 이 말이 문법적인 말로 성립되려면 ‘슬프다’의 반대말인 ‘기쁘다’를 썼을 경우에도 어색함이 없어야 하는데 ‘기쁜 비극’은 아무도 들은 일이 없을 것이다.

시끄러운 소음 : ‘소음(騒音)’ 자체가 ‘시끄러운 소리’이다. 시끄럽지 않으면 ‘소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시범을 보이다 : 지식인들도 곧잘 쓰는 비문법적 말이다. 모범을 보이

는 것을 ‘시범(示範)’이라고 한다. ‘시(示)’가 바로 ‘보일 시’이다. 따라서 그대로 ‘시범하다’라고 하면 된다.

신년 새 해 : 어느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유별나게 잘 썼던 말이다. ‘신년’ 자체가 ‘새 해’이다. 이런 말은 공연히 멋을 부리려다가 무식해진 것이다.

쓰고 기록하다 : ‘기록(記錄)’의 뜻이 ‘적음’이다. 적는다는 것은 쓴다는 행동이 따르는 말이므로 그대로 ‘기록하다’라고 하면 된다. ‘쓰고 적다’도 우습다.

아름다운 미성 · 아름다운 미인 : ‘아름다울 미(美)’가 들어가는 말에는 우리말의 ‘아름다운’을 넣어서는 안 된다. 미운 소리는 ‘미성’이라 하지 않으며 미운 사람을 ‘미인’이라고도 하지 않는데, 그 반대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말이 될 것 같은가? 그대로 ‘미성 · 아름다운 소리’ 또는 ‘미인 ·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면 된다.

아끼고 절약하다 : ‘아껴 쓰는 것’

이 곧 절약이므로 이 말은 그대로 ‘아끼다’ 또는 ‘절약하다’이다.

아직 미정 : ‘아직 정해지지 않음.’ 이 ‘미정(未定)’이므로 ‘아직’이라는 말을 앞에 붙일 필요가 없다.

앞으로 머지않아 : 이것도 어색한 말이다. ‘머지않아’와 ‘앞으로’는 같은 뜻의 말이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가 없어도 충분하다.

어두운 암영 : 그대로 ‘암영(暗影)’이다. ‘암영’은 ‘어두운 그림자’이다.

어려운 난관 : ‘난관(難關)’의 난(難)이 ‘어렵다’의 뜻이다. 그대로 ‘난관’ 또는 ‘어려움’이다. ‘어려운 난공사’도 잘못된 말이다. ‘어려운 고비’가 ‘난관’의 우리말이다.

어려운 역경 : 이것도 그대로 ‘역경’ 또는 ‘어려움’으로 충분하다. ‘어려운 환경’도 좋다.

어린 유아 : ‘어린 아기’를 ‘유아(幼兒)’라고 한다.

없어지고 사라진 나무 : 어느 뉴스 시간에 나왔던 말이다. ‘없어진 나무’ 또는 ‘사라진 나무’면 될 것을

공연히 덧붙여서 우습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종류 : ‘여러 가지’ 또는 ‘여러 종류’로 갈라서 써야 한다. ‘종류’라는 말이 곧 ‘가지’이다. ‘종류수’는 ‘가지수’이다. ‘피해를 입다’나 ‘기간 동안’과 더불어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낱말 중의 하나이다.

여명이 밝다 : ‘밝아 오는 새벽’을 ‘여명(黎明)’이라고 한다. ‘밝다’라는 말을 쓰려면 ‘여명’이라는 말을 빼고 ‘날이 밝다’든지 ‘새벽이 밝는다’라고 말하면 된다.

여백이 남다 : ‘글씨를 쓰고 남은 빈 자리’를 ‘여백(餘白)’이라고 하며 ‘여백’의 여(餘)가 바로 ‘남을 여’이다. 따라서 ‘여’가 들어가는 낱말에는 ‘남다’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여분이 남다 : 이것도 그대로 ‘여분이 있다’ 또는 ‘나머지가 있다’ 등으로 써야 한다. ‘여유(餘裕)가 남다’를 쓰지 않는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열거식으로 나열하라 : ‘열거(列擧)’는 ‘하나씩 들어 말함’이고 ‘나열(羅列)’은 ‘죽 벌여 놓음’이다. ‘열거

식으로 나열하다'면 행동 자체에 모순이 생긴다. '이것 저것 들어가며 말하라' 해 놓고 가진 것을 '죽 벌여 놓으라'고 했으니 종잡을 수 없다. '열거' 아니면 '나열'의 어느 한쪽만을 써야 한다.

영원한 영면 : 영원히 잠드는 것, 다시 말해 죽는 것을 '영면(永眠)'이라고 한다. '영원한 영면'이면 소생하는 영면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영원'을 넣어서 말하려면 '영원한 잠'이 좋겠고 '영면'을 쓰려면 '영원한'은 필요하지 않다.

영화 구경을 보다 : 보는 것이 곧 '구경'이다. 그대로 '영화를 보다' 또는 '영화 구경을 하다'이다.

오색의 빛 : '오색' 아니면 '다섯 가지 빛'이다.

오음의 소리 : '다섯 가지 소리' 또는 그대로 '오음(五音)'이다.

오촌 당숙 : 이것도 옛날부터 시골 사람들이 많이 썼던 말이다. '오촌 아저씨'를 '당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숙' 속에 벌써 '오촌'의 뜻이 들어 있으므로 이런 말은 피해야

한다.

옥상 위에서 : '옥상(屋上)'은 '지붕 위'이다. 지붕 위의 위면 허공이다. 그러므로 그대로 '옥상' 또는 '지붕 위'라고 말해야 한다.

외출 나오다 : 군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 '외출'은 '밖으로 나오다'이다. 그러므로 '외출했다'면 된다.

외치는 함성 : 여럿이 높이 외치는 소리를 '함성(喊聲)'이라고 하므로 이 말은 그대로 '함성' 또는 '외치는 소리'를 써야 한다.

요청되는 바람직함 : '요청(要請)'은 '요긴하게 청하다(바라다)'이므로 이런 말은 쓰면 곤란하다.

용도로 쓰인다 : '용도(用途)'는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이어서 벌써 '쓰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용도로 쓰인다'는 좋지 않다. 이 말은 그대로 '이런 데 쓰인다'라든지 '용도가 이리이러하다' 또는 '용도'에서 다음의 말을 이어야 한다.

우선 먼저 : '우선(優先)'과 '우선(于先)'에 모두 '먼저'의 뜻이 있다.

‘우선권(優先權)’은 ‘남보다 먼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于先)’은 단순히 ‘먼저’ 또는 ‘이쉬운 대로’의 뜻을 가진 말이다.

원예를 가꾸다 : 원예(園藝)는 식물을 가꾸는 ‘기예(技藝)’이므로 가꾸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꾸는 대상이 되는 식물명(植物名)을 붙여서 ‘꽃을 가꾼다’느니 ‘채소를 가꾼다’는 식으로 써야 한다.

월척이 넘다 : 어느 방송국의 여가자가 소양호에서 ‘구명낙시’를 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다. ‘월척(越尺)’은 한 자 넘는 것을 뜻하는 낙시 용어다. ‘월척’의 월(越)이 ‘넘다’인데 거기서 다시 넘으면 ‘두 자’를 뜻하는 말이 될까? ‘한 자 넘는’ 또는 그대로 흔히 쓰는 ‘월척’이면 그만이다.

유사한 유형 : ‘유사한 모양’이다. ‘유사(類似)’는 ‘서로 비슷한(닮은) 것’을 뜻하고 ‘유형(類型/유형)’은 ‘닮은 것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형’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각각 잘라서 써야 한다.

유산을 남겨 주다 : ‘남겨 놓은 재산’이 곧 ‘유산(遺産)’이므로 이 말은 그대로 ‘유산을 주다’로 족하다. ‘재산을 남겨 주다’도 된다.

울동감을 느낀다 : ‘울동을 느낀다’이다. 그러나 ‘울동미를 느낀다’가 더 좋을 것이다.

음모를 꾸미다 : ‘음모(陰謀)’ 자체가 ‘일을 비밀히 꾸밈’이다. 따라서 그대로 ‘음모하다’ 또는 ‘음흉한 일을 꾸미다’를 써야 한다.

이행해 가다 : ‘이행(移行)’이 ‘옮겨 가다’이므로 그대로 ‘이행하다’ 또는 ‘옮겨 가다’를 써야 한다.

이후의 사후 대책 : ‘이후’나 ‘사후’ 중에서 한 낱말은 빼야 한다. ‘이후의 대책’ 또는 ‘사후의 대책’이면 그만이다.

익애의 사랑 : ‘몹시 사랑하다’가 곧 ‘익애(溺愛)’이다. ‘사랑 애(愛)’자가 들어간 말에 다시 ‘사랑’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인수받다 : 그대로 ‘인수(引受)하다’이다. ‘인수’는 ‘물건이나 권리를 넘기어 받는 것’을 뜻하며, 그 마 속

에 ‘받다’가 들어 있으므로 그대로 ‘인수하다’면 된다.

일정하게 정하다 : 그대로 ‘일정하게 하다’면 된다.

일찍이 조실부모 하고 : 일찍이 부모와 사별한 것을 ‘조실부모(早失父母)’라고 한다. 한자말 ‘조실(早失)’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부모를 잃은 것을 모두 ‘조실부모’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식인도 이 말을 곧잘 쓰고 있다. 이 말은 그대로 ‘조실부모 하고’를 쓰든지 ‘일찍이 부모를 잃고’를 쓰면 된다.

자식을 죽이는 살해자 : ‘자식 살해자’ 또는 ‘자식을 죽인 자(사람)’면 된다.

작품을 만든다 : ‘작품 활동을 한다’ 또는 그림이면 그림, 소설이면 소설 등을 어찌한다(그린다, 쓴다)로 표현해야 한다. ‘예술품을 만든다’라는 말은 되므로, 어떤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서 써야 한다. 많은 지식인들이 쓰고 있는 비문법적 겹말이다.

잔설이 남아 있다 : ‘잔설(殘雪)’

은 ‘남아 있는 눈’이므로 ‘잔설이 남다’는 틀린다. 그대로 ‘잔설이 있다’ 또는 ‘눈이 남아 있다’면 된다.

잔재가 남다 : ‘잔재(殘滓)’가 ‘남은 찌꺼기’이므로 ‘남다’라는 말은 필요하지 않다.

잠입해 들어오다 : 몰래 숨어 들어오는 것을 ‘잠입(潛入)’이라고 하므로 그대로 ‘잠입해 오다’면 된다.

장도의 길에 오르다 : ‘장도(壯途)’가 ‘장한 길’이므로 그대로 ‘장도에 오르다’ 또는 ‘장한 길에 오르다’이다.

장외 밖으로 나가다 : ‘장외(場外)’가 마당 밖 또는 운동장이나 회의장 밖으로 뜻하는 말이므로 ‘장외 밖으로’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대로 ‘장외로’ 또는 ‘장 밖으로’이다.

재학하고 있다 : ‘재학중이다’ 또는 ‘재학한다’이다. ‘재학생이다’도 된다.

전래되어 오는 : ‘전래(傳來)’가 ‘전해져 옴’이므로 그대로 ‘전래되는’ 또는 ‘전해져 오는’을 쓰면 된다.

전선줄 : ‘전선(電線)’의 ‘선’이

‘줄’이므로 그대로 ‘전선’ 또는 ‘전기 줄’이라고 하면 된다.

절실감을 느끼다 : ‘절실함을 느끼다’이다. 아니면 ‘절감(切感)한다’를 쓰면 된다.

젊은 소장층 : 젊고 의기가 왕성한 젊은 층을 ‘소장층(小壯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장층’이라는 말 자체에 ‘젊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젊은 소장층’은 틀린다. 반대말인 ‘늙은 소장층’은 되지도 않는다.

접수받는다 : 곧잘 쓰이고 있는 비문법적 말이다. 그대로 ‘접수하다’ 또는 ‘OO을 받는다’이다.

좋아하는 선호도 : ‘선호(選好)’ 자체가 ‘좋아하다’의 뜻을 가진 말이므로 그대로 ‘좋아하는 정도’ 또는 ‘선호도’만으로 말을 만들어야 한다.

좋은 양서 : ‘좋은 책’이 곧 ‘양서(良書)’이므로 앞의 ‘좋은’은 필요하지 않다.

좋은 호조 : ‘호조’는 ‘좋은 상태’ 또는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호조(好調)’의 ‘조(調)’는 일본말이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조(條)를 쓴 ‘호조’라는 말은 없으므로 ‘호조건(好條件)’을 쓰고 있으나 이것도 일본 말투이므로 ‘좋은 조건’을 쓰는 것이 좋다.

주시해 보다 : 그대로 ‘주시하다’이다. ‘주의해 보다’도 좋다.

줄여서 부른 약칭 : 어떤 명칭을 줄인 것이 ‘약칭(略稱)’이므로 ‘줄여서’는 필요하지 않다. ‘줄인 명칭’ 아니면 그대로 ‘약칭’이다.

중요한 요건 : ‘요건(要件)’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 또는 ‘요건한 조건’이다.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이므로 그대로 ‘요건’ 또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써야 한다.

지나가는 과객 : 텔레비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과객(過客)’이 곧 ‘지나가는 객(손님·길손)’이므로 이 말은 ‘지나가는 길손’이나 그대로 ‘과객’을 써야 한다.

지나가는 통행인 : 이것도 ‘지나가는 사람’ 또는 ‘통행인’을 써야 한다. ‘지나다니는 사람’을 ‘통행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나간 과거 : ‘지나간 일’ 또는 그대로 ‘과거’만을 써야 한다.

지나치게 과식하다 : ‘지나치게 먹다’가 곧 ‘과식(過食)’이므로 이런 말은 피해야 한다.

지난 과거 : 그대로 ‘과거’ 또는 ‘지난 일’ 같은 말을 쓰면 된다. ‘지나지 않은 과거’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쓰일 수 있겠는가?

직시해 보다 : ‘주시해 보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시(直視)하다’ 또는 ‘똑바로 보다’를 쓰면 된다.

진 패인 : ‘패인(敗因)’이 ‘진 원인’이므로 앞의 ‘진’은 필요하지 않다.

차치해 두고 : ‘차치(且置)’의 ‘치’가 ‘두다’의 뜻이므로 그대로 ‘차치하고’ 또는 ‘내버려 두고’를 쓰면 된다.

참는 인내 : ‘인내(忍耐)’가 ‘참고 견딤’이므로 ‘참는 인내’는 쓰면 안 된다.

추출해 내다 : ‘추출(抽出)’이 ‘빼내다’ 또는 ‘뽑아내다’라는 뜻의 말이므로 구태여 ‘내다’를 덧붙일 필요 없이 그대로 ‘추출하다’를 쓰면 된다.

다.

침숙감을 느낀다 : ‘OO감을 느낀다’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침숙함을 느낀다’가 바른 말이다.

침입해 들어오다 : 그대로 ‘침입해 오다’이다.

침전이 가라앉는다 : 떠 있는 알갱이들이 바닥에 가라앉는 현상을 ‘침전(沈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대로 ‘침전된다’나 ‘무엇이 가라앉는다’라는 식으로 써야 한다.

크게 대노하다 : ‘대노(大怒)’ 자체가 ‘크게 노하다’이므로 ‘크게 대노하다’는 우스운 말이 된다. 그대로 ‘크게 노하다’ 또는 ‘대노하다’를 쓰면 된다.

‘大怒’의 발음을 사전에서는 ‘대로’로 적고 있다. 또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는 ㄴ은 ㄹ로 적는다’라는 맞춤법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 조항은 모든 낱말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는 습관음에 한해서 그렇게 적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대로’는 실제의 발음과는 다른데도 규정을 남용한 표기라고

하겠다.

터지는 폭음 : ‘폭음(爆音)’ 자체가 ‘터지다’의 뜻이 있으므로 그대로 ‘폭음’ 또는 ‘터지는 소리’를 쓰면 된다. 이 말은 ‘폭음 소리’라는 겹말과 함께 쓰이는 수도 있다. ‘터지는 폭음 소리’라고 하면 이중으로 겹말이 된다. 즉 ‘폭=터지다’와 ‘음=소리’가 앞뒤에서 같은 뜻의 말과 겹치고 있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

포로로 잡히다 : ‘포로(捕虜)’의 ‘포’가 ‘잡다’의 뜻이므로 그대로 ‘잡히다’ 또는 ‘포로가 되다’이다.

폭음 소리 : ‘폭음(爆音)’ 자체가 ‘폭발하는 큰 소리’이므로 ‘소리’를 두 번 겹쳐 쓸 필요가 없다.

푸른 창공 : ‘창공(蒼空)’ 자체가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므로 그대로 ‘푸른 하늘’ 또는 ‘창공’이면 그만이다.

피격 격추되다 : KAL기 격추 사건이 있었을 때에 많이 들었던 말이다. ‘피격(被擊)’은 ‘공격을 받는 것’이고 ‘격추(擊墜)’는 ‘공격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어느 쪽에나 ‘공격받

다’의 뜻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은 빼는 거의 좋다. 그대로 ‘격추되다’면 벌써 ‘피격’의 뜻을 담게 된다.

피해를 입다 : 가장 심하게 오염되고 있는 말이다. ‘피해(被害)’의 피(被) 대신에 수(水)·풍(風)·동(凍)·한(寒·旱)·손(損) 따위의, 원인이 되는 말들을 쓰면 모두 문법적인 말로 돌아간다. 이 말들을 넣고 ‘입다’를 뒤로 가져오면 된다. ‘수해를 입다, 풍해를 입다, 동해를 입다, 한해를 입다’와 같이 쓰기를 바란다. ‘손해’에는 ‘보다’를 쓰는 경우가 더 어울린다.

하얀 백마 : ‘백마(白馬)’가 곧 ‘하얀 말’이므로 앞의 ‘하얀’은 군더더기이다.

한복판 가운데 : ‘한복판’이나 ‘한 가운데’는 같은 뜻의 말이다. 어느 한쪽만을 써야 한다.

함께 동승하다 · 함께 동참하다 · 함께 동행하다 : ‘함께’와 ‘동(同)’은 같은 뜻의 말이다. 그러므로 ‘함께’라는 말을 빼고 그대로 ‘동승하다(함께 타다) · 동참하다(함께 참가하

다) · 동행하다(함께 가다)’를 골라서 쓰면 된다.

함유하고 있다 : ‘함유(含有)’는 ‘포함하고 있다’이다. 그 ‘있다’에 다시 ‘있다’를 쓸 필요는 없다. 그대로 ‘함유하다’ 또는 ‘가지고 있다’를 쓰면 된다.

항상 상비하다 : ‘상비(常備)’ 자체에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 있으므로, 그대로 ‘상비하다’ 또는 ‘항상 갖추다’를 쓰도록 한다.

해변가 : ‘해변(海邊)’의 ‘변’이 ‘가’라는 뜻이다. 그대로 ‘해변’ 또는 ‘바닷가’를 써야 한다.

해 보려고 하는 시도 : ‘해 보다’가 곧 ‘시도(試圖)’이므로 이 말은 그대로 ‘해 보다’ 또는 ‘시도하다’를 써야 한다.

해안가 : ‘해변가’와 마찬가지로 ‘해안가’의 ‘안(岸)’도 ‘가’의 뜻이므로 그대로 ‘해안’ 또는 ‘바닷가’를 써야 한다.

해치는 해충 : ‘해치는 곤충’이지 ‘해치는 해충’이 아니다. ‘해치는 벌레’ 또는 그대로 ‘무엇 무엇의 해충’

이면 된다.

향락을 즐기다 :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향락(享樂)’이라고 하므로 거추장스럽게 ‘즐기다’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그대로 ‘향락’이나 ‘즐기다’를 따로따로 써서 말을 만들어야 한다.

허다히 많다 : ‘허다(許多)하다’가 ‘많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대로 ‘허다하다’ 또는 ‘많다’만을 써야 한다.

허송세월을 보내다 : 많이 쓰이고 있는 비문법적 말이다. ‘허송(虛送)’은 ‘헛되이 보내다’이므로 ‘허송세월을 보내다’는 좋지 않다. 그대로 ‘세월을 허송하다’라든지 ‘허송세월하다’로 쓰면 된다.

현안 문제로 걸린다 : ‘현안(懸案)’이 ‘걸려 있는(걸린) 안건’이다. 그러므로 ‘현안 문제이다’ 또는 ‘현안 문제로 남다’ 등의 말을 써서 겹말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

현재 재직 중 : 그대로 ‘재직 중’이다. 아니면 ‘현재 어디에 근무’이

다.

호시탐탐 노리다 : 범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리는 것을 ‘호시탐탐(虎視眈眈)’이라고 한다. ‘탐탐’이 ‘노리다’의 뜻이므로 ‘호시탐탐’ 뒤에 다시 ‘노리다’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

혼자 고군분투하다 : ‘고립된 군사’가 ‘고군(孤軍)’이다. 고(孤)는 ‘홀로’의 뜻을 가진 말이므로 ‘혼자 고군분투’는 그대로 ‘고군분투’를 써야 한다. ‘혼자 분투하다’도 된다.

혼자 독주하다 : 이것도 그대로 ‘독주하다’ 또는 ‘홀로 달리다’를 써야 한다. ‘독주(獨走)’ 자체가 ‘홀로 달리다’이다.

홀로 독립적으로 : 홀로 서는 것을 ‘독립(獨立)’이라고 하므로 이 말도 ‘홀로’를 빼고 그대로 ‘독립’만을 써야 한다.

회고해 보다 : ‘회고(回顧)’의 고(顧)가 ‘되돌아보다’라는 뜻이므로 그대로 ‘회고 한다’ 또는 ‘돌이켜 본다’, 아니면 ‘되돌아 본다’로 쓰면 된다.

회의를 품는다 : ‘회의(懷疑)’의 회(懷)가 ‘품는다’의 뜻이다. 그대로 ‘회의한다’ 또는 ‘의심을 품는다’로 써야 한다.

흐르는 유동적인 것이다 : ‘유동(流動)’의 뜻은 ‘흘러 움직임’이므로 ‘흐르는 유동’은 유치한 표현이다. 그대로 ‘유동적’을 쓰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보기로 든 것들은 우리가 책에서 흔히 볼 수 있거나 일상의 대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 이 밖에도 잘못 쓰이고 있는 말들은 많으나, 모두가 같은 뜻의 말을 중복해서 쓰는 데서 생긴 것들이다.

훌륭한 문장을 만들려면 문맥이 호응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적절한 낱말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의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문장이 매끄럽고 내용이 진실해야 하는데, 비문법적 겹말은 문장을 더듬거리며 읽게 하고 글을 쓴

이의 지식을 의심케 하는 일밖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
식한 글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무식
한 글을 썼다는 말과 같다.

토박이 마을과 땅 이름

권순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토박이 땅이름》, 《박 추억 속의 그리움》, 《한글과 농촌 문화》 씀.

덕천리(德泉里)

박달 쪽에서 내려오는 냇물은 내바닥으로 스며들어 물이 많이 흐르지 않지만, 구왕골 마을 쪽에 ‘동보’라는 보가 있어서 이 보에는 물이 많이 새어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많이 새는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덕천이라고 한 것이다. 또 덕천사라는 절이 있어서 그 이름이 되었다고도 한다. 절터로 알려진 근처에 석탑 옥신석도 있고 넓고 편편한 곳도 있다. 일제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왕골을 덕천1리, 산을을 덕천2리, 남성미·숫가마골·골안·쇠비산을 덕천3리라 하고 있다.

덕천1리 (구왕골)

옛날에 이 근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던 곳이다. 고인돌이 있고, 절터가 있을 뿐 아니라 남을 다스리는 양반들이 살았다는 데서 옛 무덤도 많이 있다.

임진왜란 때 고씨, 문씨, 이씨가 정착하여 살았다. 그때는 고문리라고 하다가 그 뒤에 안동 권씨들이 살면서 권문리로 부르다가 조선조 말엽 경주 부윤을 지낸 노영경이 와서 살면서 동네가 왕성했다고 하여 왕골이라 했는데, 그보다도 옛날부터 왕성했다고 해서 구왕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지금은 안동 권씨 말고도 여러 성이 함께 살고 있다.

■ 동계

돌 제단 : 바위

나무 : 주위에 느티나무 17그루

(숲을 이루고 있음) 소나무 2그루

제일: 정월 대보름날(음 1. 15.)

제관: 옛날에는 골라서 지냈으나
지금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

제물: 동네 돈을 거두어서 장만.
근처에 경주 부윤을 지낸 민치서의
선정비가 있다.

■ 토박이 땅이름

● 독수지 - 송아지 머리 같은 바
위가 있었는데 물먹는 형상이라 누
군가 뿔을 깨어버리니 물이 새어 나
가서 그곳에다 못을 막았다고 한다.

● 독수골 - 송아지 머리와 같은
바위가 있어서 이 골짜기를 독수골
이라고 부른다.

● 당고개 - 고개 마루에 돌무더
기. 당이 있는 고개로 이 고개를 넘
을 때 돌 세 번 던지고 침 세 번 뱉는
데, 돌을 세 번 던지는 것은 나에게
복을 달라는 뜻이고, 침을 세 번 뱉
는 것은 더러운 것이 물러가라는 뜻
이라고 한다.

● 밤나무등 - 밤나무가 많이 있
는 산등성이.

● 벼락통 - 벼락을 맞았다는 곳.

● 대문달 고개 - 조선에 인제가
많이 난다고 해서 중국 명풍수가 왔
다. 이곳 산의 혈맥(산맥)을 끊었는
데 대문 달만큼 끊어져서 그 고개를
대문달 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구왕
골에서 소리미로 넘어가는 고개이
다.

● 향나무 운골 - 우물가에 향나
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 당수골 - 당고개 아래 있는 골
짜기이다. 고개에 돌무더기 당이 있
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 원고개 - 이 마을에서 보면 원
쪽에 있는 고개이다.

● 사창들 - 옛날에 이 들판에 쌀
창고가 네 개 있었다고 하여서 사창
들이라 한다. 들판에 무덤이 많이 있
었던 곳이다. 경부고속철도 공사 때
문에 밭갈 작업을 했는데 고분군이
었다. 사람 죽은 시체를 사체라고 하
는데 사체가 사창으로 불리게 되었
다고도 한다.

● 고당사각단 - 옛날 당수나무가
있는 마을이다.

● 장승백이 - 장승이 서 있었던 곳이다.

● 안마실 - 안쪽에 있는 마을.

● 동보 - 내 동쪽에 있는 보, 또는 동불이 있었다는 절의 산 밑에 있는 ‘보’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 동보들 - 동보 물을 쓰는 들이다.

● 동보뚝 - 동보가 있는 뚝이다.

● 동보도랑 - 동보물이 흐르는 도랑이다.

● 동보산 - 동보가 있는 옆산이다. 그리고 절에 구리 불상이 있어서 동불산 하던 것이 부르기 쉽게 발음이 변하여 동보산으로 부른다고도 한다. 지금도 산 위에 가면 절터로 보이는 넓은 터와 탑신석이 있다.

● 물개들 - 모래로 이루어진 들.

● 달뫼만디 - 이 마을에서 달맞이를 하던 산마루.

● 선작골 - 착한 사람이 살았다는 골이다.

● 가마바우 - 가마 같이 생긴 바위를 말한다. 이 바위는 탑신석인데 이 바위가 있는 위 산능선이 편편하

다. 이곳을 절터라고 본다. 여기에 동불이 있었고 탑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어느 부잣집에서 이 돌을 주춧돌로 하려고 8덩이로 깨었는데 무슨 영험이 있는 바위라 해서 못했다고 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바위를 어디 쓰려고 가지고 가는데 무슨 짐승이 나와서 자꾸 흙을 퍼부어 못 가지고 가서 그곳에 나눈 것이라고 한다. 이 돌은 탑신석인데 8동강을 내어 놓은 그대로이다.

● 새보 - 새로 만든 보.

● 강개울골 - 옛날 강씨들이 살던 곳이다. 강씨를 속되게 말할 때는 강개라고 말한다. 또는 강한 장수가 묻힌 골짜기라 한다. 이 골짜기에서 집을 지으려고 발굴 작업을 하였는데 청동제 기마 인물상이 나온 것을 보면 강한 장수가 묻힌 곳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골이 강개울로 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산막골 - 산에 막이 있던 곳.

● 앞섰갯 - 마을 앞에 있는 섯갯. 마을 앞에 울섯 같이 우거지게 한 산이다. 이런 섯갯은 마을마다 있는

데 마을에서 보면 훤히 보이는데 숲으로 우거지게 한다.

● 안개골 - 안개가 잘 끼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 안개가 넘어서면 비가 온다고 한다.

● 달뿔만디 - 옛날 달 보던 산마루이다.

● 뿔달뿔만디 - 달보는 산마루로서 그 위쪽을 말한다.

● 아래 달뿔만디 - 달 보는 산마루로서 아래쪽을 말한다.

● 복숭나무골 - 산복숭아 나무가 있는 골짜기이다. 복숭아 나무를 이 지방에서는 복숭나무라 한다.

● 내남밭골 - 남쪽의 안쪽에 있는 밭 골짜기라는 뜻이다.

● 자탕골 - 덕천1리 구왕골에서 화실 소리미 쪽으로 가면 왼쪽에 골짜기가 있다. 좌측에 있다고 하여 그곳이 자탕골이 된 것이다.

● 매화나무골 - 매화나무가 많은 산골짜기이다.

● 참나무골 - 참나무가 많은 산골짜기를 말한다.

● 분지골 - 풀을 많이 베던 곳으

로 풀이 분으로 변한 것이다. 또는 단지나 옹기 같이 생긴 산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딸랑고개 - 당고개를 말하는데 고개를 넘을 때 돌을 던지면 딸랑 떨어진다는 고개이다. 옛날에 이 고갯마루 돌무더기 당에서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면서 빌던 고개였다고도 한다.

● 진골 - 골짜기가 긴 곳이다. 길다는 것을 길다고 말한다.

● 복도가리 - 베짜는 복 같이 생긴 바위를 말한다. 이 바위는 고인들이다. 전설에 의하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베를 짜다가 빠뜨리고 간 복이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 동바우모팅 - 동보산에 있는 바위의 모퉁이라는 뜻이다. 모퉁이를 모팅이라고 한다.

● 새각단 - 새로 생긴 작은 마을을 말한다.

● 안각단 - 이 마을의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아래각단 - 이 마을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 신사등 - 옛날 이 산등의 편편한 곳에서 씨름을 많이 했다고 한다. 씨름을 심사한다고 심사등이라고 한 것이 신사등이 되었다.

● 재나무각단 - 재나무가 많이 있는 마을이다. 노린재나무를 이 지방에서는 재나무라고 한다. 이 나무 색깔이 잿빛일 뿐 아니라 꽃이 피면 잿빛으로 피기 때문이다.

● 독작골 - 소머리 같이 생긴 바위가 있었다는 골짜기이다.

● 연당앞들 - 연당이 있던 앞에 있는 들이다.

● 산밭골 - 사산에 밭이 많은 골짜기를 말한다.

● 약목골 - 약물이 있던 골짜기이다. 약물을 약목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 무지등 - 무제를 지내던 산등이다. 가물 때 비 오도록 지내는 가우제를 이곳에서 한다. 물의 제사를 ‘무제 지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뀌어 ‘무지’로 부르게 된 것이다.

● 수리바우 - 독수리 같이 생긴 바위이다.

● 상수보 - 주상주 라는 사람이 막았다는 보.

● 선작골 - 선녀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 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 큰갓골짜기 - 옛날 큰집 소유의 산이었다. 옛날 큰집이란 몇 대가 내려온 장손인 집이다.

● 노리고개 - 구왕골에서 숫가마골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옛날 노루가 많이 다니던 고개라고도 한다.

● 고당수 - 옛날부터 당수나무가 있는 숲이다. 이곳에 조선조말 경주 부윤을 지낸 민치서 선정비가 있다. 느티나무 17그루, 소나무 2그루가 있는데 바위에 동제단을 만들어 이 마을에서 동제를 지낸다.

● 애장골 - 어린애가 죽었을 때 많이 묻었던 곳이다.

● 윗각단 - 이 마을 뒤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 신쟁미 - 옛날 신장수의 무덤으로 알려진 묘.

덕천2리 (산을)

옛날에 이곳 골짜기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었는데 위에 있는 마을은 상(上)이라 하여 상신(上辛) 또는 말신이라 하고, 아래에 있는 마을을 을(乙)이라 하여 하신(下辛) 또는 신을(辛乙)이라 했다. 나중에 내가 새을(乙) 자 모양으로 흐른다고 해서 내의 위를 ‘상신’이라 부르고 내 아래를 ‘신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말이는 위지만 맵다는 데서 위상(上)자와 매울신(辛)자를 쓰면서 상신(上辛)이다. 아래는 덜 맵다는 데서 을을 붙여 신을(辛乙)이라 지었다.

옛날에는 약이름 신(莘)자와 새을(乙)자를 쓴 것을 보면, 물이 굽이쳐 흐르는 것을 보고 쓴 게 아닌 것 같다. 그때는 냇가 따라 여러 곡식과 약초가 될 만한 풀이 잘 자란다는 뜻으로 약이름 신(莘)자를 쓴 것 같다. 월성 최씨들이 많이 살던 마을이다.

■ 동계

나무 : 전에는 느티나무 5그루, 포구나무 3그루에서 지냈으나 2004년 경부고속 철도공사로 인해 이 마을 당나무가 고속철도 부지에 들어갔다. 그러해서 지금은 느티나무 12그루가 있는 곳으로 옮기었다. 그 가장 중앙에 있는 2그루에 큰 상석을 놓고 지내고 있다.

제일: 정월 대보름날(음 1. 15.)

제관: 한 사람이 지냈으나 요즘은 마을 청년들이 지낸다.

제물: 집집마다 돈을 거두어 장만한다.

■ 토박이 땅이름

● 어분골 - 산봉우리 다섯 개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봉우리로 산을 업고 있다는 데서 나온 이름이다.

● 윗중골 - 산봉우리 중간의 위쪽이란 뜻.

● 어두분골 - 산봉우리 다섯 개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봉우리로 어둡다는 뜻.

● 아래중골 - 산봉우리 다섯 개 가운데 아래에 있는 골짜기.

- 공동산 - 공동묘지가 있는 산.
- 서당골 - 서당이 있던 골짜기.
- 앞들 - 마을 앞에 있는 들.
- 동보도랑 - 동보 물이 내려오는 도랑.

- 대보 - 큰 ‘보’라는 뜻.
- 대보뚝 - 대보가 있는 뚝. 큰 내의 뚝을 말한다.

- 대보들 - 대보 물을 대는 들.
- 샘바대 - 논바닥에 물이 새는 곳.

- 바닷보 - 샘바대에 물을 대는 곳.

- 중봇거레 - 이조1리 갯디미와 산 그 가운데에 있는 거리. 이 지방에서는 ‘거리’를 ‘거레’라고 한다.

- 신을들 - 신을 마을 앞에 있는 들이다.

- 상추보 - 물상치가 많이 있는 보. ‘물질경이’를 이 지방에서는 ‘물상치’ 또는 ‘물상추’라 부른다. 물이 깊고 물상치가 많이 나는 보라고 한다.

- 숲각단 - 숲이 있는 마을이란 뜻인데, 이 마을 당수나무가 있다.

숲이 있는 작은 마을이다.

- 가매방구 - 가마 같이 생긴 바위이다. ‘가마’를 이 지방에서는 ‘가매’라고 하고 바위를 방구라고 한다.

- 총각바우 - 총각들이 많이 놀던 바위라고 한다. 처자바우 아래쪽에 있는 바위이다. 전설에 의하면 어린애를 업고 가던 처녀가 미끄러져 바위가 된 것을 본 총각이 있었다. 너무나 애통해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다가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 갯빈 - 신을 마을 앞의 강변이다. 강이 비었다고 ‘갯빈’이라 한다. 여기서는 ‘강변’을 ‘갯빈’이라고 한다.

- 신을보 - 신을 마을 앞에 막은 보.

- 섬뚝배기 - 섬 같이 생긴 논이 있는 곳.

- 부웅디미 - 옛날에 부엉이가 많이 와서 울던 곳이다. 부엉이를 이 지방에서는 ‘부앵’이라고 한다.

- 남끝들 - 남쪽 끝의 들이란 뜻.
- 당고개 - 신을에서 전포 산수

골로 가는 고개인데 고갯마루에 돌무더기 당이 있었다.

● 섯갓 - 마을 앞산으로 울섯을 한 듯이 우거진 산이다.

● 불선방구 - 불을 켜고 빌던 바위를 이 지방에서는 방구 또는 바위라고 한다.

● 처자바우 - 여인이 어린애를 업은 듯한 바위이다. 총각 바위 위에 있는 바위로 전설에 의하면 처녀가 어린애를 업고 가다가 신발이 벗겨졌다. 그 신발을 주우러 가다가 미끄러져서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 아래쟁골 - 산골짜기 가운데서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

● 윗쟁골 - 산골짜기 가운데에서 위쪽에 있는 골짜기.

● 독새보 - 독과 독 사이에 있는 ‘보’라고 한다.

● 새직꺼래 - 숲이 있어 새가 많이 지저귀는 곳이다.

● 운둘막 - 웅덩이 뚝에 막을 지은 곳이다. 운은 웅덩이를 뜻하고 둘은 독을 말한다.

● 신을바대웅덩 - 신을들의 바닷

에 있는 웅덩이이다. ‘웅덩이’를 이 지방에서는 ‘웅당’이라고 한다.

● 서당고개 - 신을에서 전포 산수골로 가는 고개이다.

● 섬덤배기 - 섬띠기로 벼 수량이 많이 나는 논을 말한다. ‘많은 더미’를 ‘덤비기’라 말한다. 그만큼 땅과 물이 좋은 논들이다.

● 숲각단 - 숲이 우거진 곳에 있는 마을이다.

● 숲도가리 - 숲 근처에 있는 논을 말한다.

● 감나무도가리 - 논뚝에 감나무가 있는 논이다.

덕천3리 (숫가마골, 남성미, 골안, 쇠비산)

< 숫가마골 >

이 마을의 성부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신라시대 유리 굽던 가마터가 있는 곳으로, 유리를 구울 때는 숲으로 구웠다는 데서 이 마을을 ‘숫가마골’로 부른다. 그런데 요즘은 검

은 ‘현(玄)’자를 따서 ‘현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 토박이 땅이름

● 앞니비알 - 앞니 같이 툭 튀어나온 산비탈이다.

● 강개우골짜 - 강씨들이 살던 골짜기라 한다. 또는 강한 사람이 묻힌 곳이라 한다. 이곳의 고분에서 청동기마 인물상이 출토되었다.

● 솔안들 - 솔안에 있는 들.

● 능끝들 - 경덕왕릉 아래 있는 들이다.

● 놀골 - 노루가 많이 있는 골짜기이다.

● 외빌도랑 - 오배지 못도랑을 말한다. 토기 가마가 있던 곳에서 흘러내리는 도랑.

● 숯가마골도랑 - 숯가마골 앞을 흐르는 도랑이다.

● 외빌들 - 옥배를 만들던 가마가 있던 곳이다. ‘옥배’가 ‘오배’ 또는 ‘외빌’로 불리고 있다.

● 베락태 - 옛날에 벼락이 친 곳이다.

● 능골 - 신라 35대 경덕왕릉은 사적 23호이다. 호석이 둘러져 있고 십이지신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난간석도 있고 상석도 완벽하게 남아 있다.

● 외빌못 - 외빌들에 있는 못(오배지).

● 삭다리못 - 사타구니 같이 생긴 곳에 막은 못이란 뜻이다. 큰못 밑에 있는 작은 못이란 뜻. 다시 말해 큰못의 사타구니에 있는 작은 못이란 뜻이다. 또는 섣다리를 놓았던 곳에 막은 못이라고도 한다. 섣다리가 삭다리로 불리게 된 것이다.

● 옛골새 - 윗골, 다시 말해 기와나 토기를 굽던 곳을 말한다. ‘윗골’을 ‘옛골새’라 한다.

● 노리고개 - 노루 꼬리 같이 생긴 고개이다. 숯가마골에서 구왕골로 가는 고개.

● 삼구덩 - 옛날에 삼을 익히던 구덩이가 있던 곳이다.

● 매미골 - 사람을 많이 묻은 ‘묘골’이란 뜻의 골짜기. ‘매’는 사람을 묻는 매장을 말하고 ‘미’는 묘를 말

한다.

● 매미골못 - 매미골에 있는 못.

● 매물거랑 - 맑은 물이 흐른다는 거랑. 다시 말해 땀간물이 흐른다는 내이다. ‘맑은것’을 이 지방에서는 ‘땀같다’고 한다.

● 심골새 - 나무 심 같이 깊은 곳이란 뜻이다.

● 안골새 - 마을 안쪽에 있는 골이란 뜻이다.

● 목고개 - 사람 목 같이 생긴 고개로 숲가마골에서 외말로 넘어가는 곳이다.

● 화실못도랑 - 화곡 못물이 흐르는 도랑.

● 골애 - 늘 물이 고여 있는 논.

● 골애도랑 - 늘 물이 고여 있는 논에 물을 대는 도랑.

● 새보 - 새로 만든 ‘보’란 뜻.

● 골애보 - 늘 물이 고여 있는 논에 물을 대는 보.

● 햇골새 - 기와 굽던 곳을 윗골 하던 것이 햇골로 바뀐 것이다.

● 밀도가리 - 밀만 재배하던 곳.

● 산수골 - 황씨들의 산소(묘)가

많은 곳.

● 오배들 - 흙이 검은 들이다. 신라 때 유리 굽던 가마터가 있었는데 유리를 굽느라고 흙이 검어졌다고 전해진다. 옥 같이 고운 고배나 그릇을 만든 가마터가 있던 곳이다.

● 오배지 - 옥배 하던 것이 오배로 불리게 되었다. 그곳은 고배 같은 토기를 많이 굽던 곳이다. 그 옛 가마가 있던 터에 막은 못을 말한다.

● 오배골 - 옥 같이 고운 고배 같은 것을 굽던 곳을 말한다. 옥배가 오배로 불리게 된 것이다.

● 오목골 - 오목하게 들어간 골짜기.

< 남성미 >

성부산 남쪽 줄기의 가장 끝에 있는 마을로서 성부산을 별산으로 보면 가장 남쪽 별 꼬리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그리고 유독 남쪽 끝의 별만 꼬리가 달린 듯이 보인다고 해서 ‘남성미’라고 한다.

남쪽 끝자락 산 밑에 이루어진 마

을인 이곳은 뒷산과 앞들 모두가 고분군이다. 대개 양반들이 묻힌 곳으로 하늘의 별들이 묻혔다고 보면 된다. 이곳에서 청동기마 인물상과 여러 토기들이 많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신라시대 수많은 장수들이 묻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쪽 끝의 별이란 뜻으로 보면 된다.

■ 동제

나무: 포고나무(팽나무) 1그루, 주변에 있는 느티나무 1그루, 떡버들 1그루였으나 1992년 용박도로를 내면서 없애버림.

제일: 정월대보름날(음 1. 15.)

제관: 마을 유사.

제물: 동자금.

■ 토박이 땅이름

● 삼골짜 - 골짜기가 심을 박을 듯이 깊은 골이다.

● 모래뿔 - 모래가 밀려와서 이루어진 들이다.

< 골안 >

숫가마골 안골짜기로서 이 골짜기에 신라 때 유리 굽던 가마터가 있다고 한다.

■ 동제

지금은 안 지낸다.

■ 토박이 땅이름

● 정골 - 신라 때 유리 굽던 터가 있던 골이다.

● 정골짜기 - 신라 때 유리 굽던 터가 있던 골짜기.

● 안골 - 마을 안 깊숙이 있는 골짜기이다.

● 동전미 - 골안 앞산을 말한다.

● 밥부제산 - 밥상보 같이 펼쳐진 산등성이. ‘밥부제’는 ‘밥상보자기’의 사투리이다.

● 큰갯 - 큰 산이란 뜻이다.

● 화실고개 - 골안에서 화실을 넘어가는 고개이다.

● 냄비고개 - 골안에서 냄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번개등 - 번개가 많이 쳐서 벼

락이 친 산등이다.

● 주계등 - 주걱 같이 생긴 산이다. ‘주걱’을 이곳에서는 ‘주계’라고 말한다.

● 팔발골 - 화전민들이 파서 일군 밭이다.

● 긴미등 - 묘가 길게 늘어 있는 산등성이.

● 골안들 - 골안에 있는 들이다.

● 골안못 - 골안 앞에 있는 못.

● 정골못 - 정골에 막은 못이다.

● 질매재 - 소질매 같이 생긴 고개인데 화곡(화실)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화실골짜기 - 화실로 넘어가는 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냄비골 - 냄배로 넘어간느 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쇠비산 >

이곳은 산을 보면 동쪽의 가장 끝 자락인데 그래서 동쪽 꼬리산이란 뜻이다. ‘새’는 동쪽을 말하고 ‘비’는 꼬리를 말한다. ‘새비’ 하는 것이 부

르기 쉽게 ‘쇠비’로 바뀐 것이다.

소꼬리 같이 생긴 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리고 뱀 같이 생긴 산이라 하여 사비산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산은 동쪽 끝에 있는 산이니 쇠비산을 가장 많이 쓴다. 그 산 아래 있는 마을이다.

■ 동계

지금은 안 지낸다.

■ 토박이 땅이름

● 벼락통 - 벼락이 친 곳이라 하는데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경덕왕릉을 도굴해 가려던 도굴꾼이 벼락에 맞아 죽은 곳이라고 한다.

● 나발산 - 나발 같이 생긴 산이란 뜻이다. 이 산을 남성미 숲가마골에서 보면 나발 같이 생겼다. 그런데 부지 쪽에서 보면 소꼬리 같아서 쇠비산이라고도 하고 우산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뱀 같이 생겼다고 하여 사비산이라고도 부른다.

● 외비들 - 오배지 못물을 받아

서 농사를 짓는 들이다.

- 새미바대 - 샘이 있는 들로서
샘물을 받아내는 논들.

- 동보거랑 - 동보 물이 흐르는
냇가.

- 쇠비산 모탕 - 쇠비산이 있는
산마루.

- 쇠비산 고래장 - 쇠비산 북쪽
에 석실 고분이 있다. 신라시대 석실
같은데 어느 때인가 도굴당하여 지
금은 텅텅 빈 고분이 되어 있다.

- 쇠비산들 - 쇠비산 아래에 있
는 들이다.

한국 토종 이야기

홍석화 《토종문화와 모든살이》에서 옮김.

땅끝마을과 매생이

저 태백간두(太白山頭)의 산줄기가 영암 월출산을 거쳐 해남의 대둔·달마로 길게 내리 뻗어 그 마지막 숨을 다하는 곳. 이 땅의 끝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는 어린 초등학생까지도) 아무 이유 없이 가슴 설레게 하는 그 이름 땅끝. 토종 문화를 찾아 나서는 이번 기행 지는 달리고 또 달려 발 닿는 꼬트머리, 저 해남의 땅끝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태백 간두의 꼬트머리, 땅끝마을
글쓴이가 ‘매생이’를 처음 먹어본 것은 4~5년 전이었다.

전남 장흥 관산의 대보름 마을곳

을 취재하러 갔다가 ‘지신밟기’를 하는 도중에 어느 집에서인가 내놓는 희한한 음식이 눈에 띄었다. 국사발로 한 그릇씩 들고선 젓가락으로 떠서 훌훌 불어가며 먹는데, 특히나 노인네들이 아주 반갑게 즐겨 드는 거였다. 김이나 파래 등으로 국을 끓인 것 같기도 하여 여쭙보니, “이게 매생이여, 예전엔 아주 흔했는데, 요즘은 이것도 귀해서 먹어보기가 수월찮아졌당께.”

사람의 인연이란 것이 참 묘하게 마련이라. 얼마 전 사귀게 된 한 친구가 연말에 고향인 강진 엘 다녀올 것이라기에, “매생이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니, “아니, 형님이 우째 매생이를 다 아시요? 허긴 토종 기행 가시니. 매생이라, 거 참 침이 쪼르륵 넘어가요. 아니 매생이 모르는 남도

사람이 어디 있잖아요?” 하는 게 아닌가.

그 친구를 따라 저 북새통의 연말 귀향길을 내려갔다. 어느 곳이든 이름난 곳엘 가보면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괜히 들 야단법석이네 그러’ 하기 마련이었다.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 땅끝엘 와보면 실은 여느 남쪽 바닷가와 별다를 바 없는 평범함에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글쓴이는 외진 산골짜기나 바닷가에 오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다. 우리의 먼 조상님들이 집을 옮겨가며 ‘살 곳을 찾아’ 땅끝으로 땅끝으로 뻗어내려 온 막다른 곳.

그 어려운 세월 동안, 저 머나먼 다른 세상이었던 한양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니 하다못해 읍내 5일장엘 한번 가려해도 고개를 몇 개 넘고 한 나절을 꼬박 걸어야 했던 설움 많던 사연이 느껴졌다. 그런 사연을 저 푸른 쪽빛 바닷 속에 묻어두고, 국민관광지로 새롭게 단장한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 아득한 바다 저 너머로 섬들이 아스라이 널려 있

었다. 왼쪽 한 귀퉁이에 다소곳이 자리한 갈두 포구가 앙증스럽게 사자봉 아래 보인다.

이곳은 우리나라 맨 끝의 땅
갈두리 사자봉 땅 끝에 서서
길손이여
토말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땅끝에서 강진 다산초당으로 향하는 813번 도로는 어지간히 길기도 하지만, 길 왼편으로 내내 바라보이는 산줄기가 자못 빼어나 잠시도 시선을 멈출 수 없게 한다. 이 산줄기처럼 갖가지 모양새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 남쪽에서 이곳밖에 없지 않은가 싶다.

다산초당은 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익히 알려진 곳이지만, 지금은 보존을 위해 와당(瓦當)으로 변했다. 관광객을 의식한 꾸밈새가 조금은 눈에 거슬리긴 해도 입구 산길에 들 어찬 대나무, 차나무, 물푸레, 비자나무 숲 사이의 돌계단들, 조금 오른

편에 자리한 천일각에서 내려다본 강진만의 확 트인 풍경, 걸어서 10분 거리인 백련사로 넘어가는 오솔한 산길.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곳을 절대 서둘러서 훑 지나쳐버릴 관광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잘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산 정신의 높은 경지를 어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느냐만, 적어도 한 두 권의 기초 설명서는 뒤적여본 뒤에 하루 나절은 이 일대를 발로 걸어보며 대홍사의 초의선사, 백련사의 여말 결사 운동을 되새길 만하지 않겠는가 싶다.

녹조식물의 바닷말, 매생이

강진읍내 시장 통엔 매생이가 아주 흔했다. 장사 하러 나온 아주머니들은 길바닥에 너나없이 매생이 한 상자씩을 넣어놓고, 손님들을 반겨했다.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고 물으니 마량·회진에서 가져다주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한다. 중간 수집상인 김 씨 할아버지를 만나 다음날 장흥

군 대덕읍 신리에 함께 가기로 약속이 되었다.

우리 일행은 매생이를 4~5 뭉치(주먹만 한 한 뭉치를 ‘재기’라 부른다. 100 재기는 1점) 사다가 집에서 직접 끓여 먹기로 했다.

녹조식물의 일종인 매생이는 갈파래과에 속하는 바닷말의 한 부류로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생긴 것이 하늘하늘하니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 가히 일품이다. 꼬맹이들이 유원지 가면 꼭 사달라고 조르게 마련인 솜사탕 맛이라고나 할까.

매생이국을 조리하기는 간단하나, 자칫하면 그 본맛을 잃기 십상이라 주의해야 한다. 재료는 매생이, 굴(쇠고기), 마늘, 생강, 참기름이 전부다.

매생이는 물로 씻기 전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엉겨 있는 뭉치를 풀어주고 서너 번 깨끗한 물로 행구어둔 뒤 체로 받쳐 물기를 뺀다. 굴은 소금을 넣어(개펄 제거) 살금살금 주무르며 씻어낸 후 마찬가지로 물로 행구 체에 받쳐 놓는다.

매생이가 잠길 정도의 물(보통 3제기에 1~1.5 대접. 이 물의 양에 따라 묽은 국이 되든가 된 국이 되는 게 가려진다)을 펄펄 끓인 후, 굴을 먼저 넣고 소금으로(간장이 아닌) 간을 한다. 국물이 어느 정도 우러나면 그다음에 매생이를 넣고 다글다글 잠깐 끓인 뒤(저어가며), 생강, 마늘, 참기름을 넣곤 곧 불을 끈 뒤 잠시 뜸을 들인다.

가장 주의할 점은 매생이를 넣고 오래 끓이면 색깔이 변하면서 매생이가 아예 물이 되어 버리는 것. 매생이를 불에 올려놓고 “세배 갔다 오니 물이 돼 버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고.

매생이는 김보다 한 사리쯤 늦은 상강 무렵에 발을 설치한다(조류가 세지 않을 때). 파래는 5~8월, 김은 추분 무렵이니 제일 늦은 썸이다. 소나무나 대나무로 기둥(말뚝)을 박아 놓고, 그 사이에(약 4~5m) 대나무로 발을 엮어 늘어 띄워 두면(김발보다 40~50cm 높게) 12월 말쯤부터 수확이 시작되어 음력 정월 대보

름 무렵까지 할 수 있다.

소화도 잘 되고 변비에 좋은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어 톡톡히 덕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겨울에도 3일 이상 가면 상하게 마련이고, 말리거나 얼리면 제 맛을 잃어버리는 통에 중부지방 북쪽으론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건 완전 무공해 식품이랑께. 옛날엔 김발에 매생이가 붙으면 망한다고 난리들이었지라우. 헌디 요즘은 매생이가 귀해져 부렁께. 뭍시기냐 이놈이 청정지역에서만 자란대요. 그랑께 깨끗헌 바다서 햇빛만 묵고 사는 것이라, 김발처럼 염산을 치든가, 뭍시기냐 폐수가 흘러내려 오염이 된 디선 안 자란대요.”

대덕읍 신리 오성금 마을의 김동헌 씨(60세)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요즘 어촌에선 그나마 이 매생이가 한겨울 부업거리로 김발보다 낫다고 매생이 자랑에 열을 올린다.

우리 일행은 걸쭉한 매생이국에

밥을 비벼 점심을 먹고는,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않고 물때에 맞춰 ‘매생이 밭’을 사진 찍으러 배를 타고 나아갔다.

다행히도 인근 밭에서 매생이 채취가 한창이다. 작대기로 배 양면에서 매생이 밭을 들어 올려놓곤, 한편에 엎드리듯 하여 두 손으로 대밭에 붙은 매생이를 훑어낸다.

이렇게 채취한 매생이는 바닷물로 잘 씻어내 ‘재기’로 뭉쳐내 곧바로 인근 시장으로 출하된다. 1 재기에 보통 800~1,000원이 시세다.

“딸네미와 사이가 안 좋은 미운 사위가 처가엘 갔더니 장모가 매생이국을 끓였던 거구만. 이 사위가 북쪽 지방 사람이었던 모양이지라. 이게 김이 안 나거든. 한 숟갈 폭 떠 넣곤 속이 위뜨게 뜨겁던지 빨지도 못허구 넘기지두 못 허구 어물어물... 장모가 ‘자네 웬 말두 못 허구 그러능가’ 하니 사위가 ‘고향 생각이 나서 그렇니다요’ 했다능겨.”

김동현 씨의 덕담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다 보니 옆집 아저씨

들까지 하나 둘 모여들어 소주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사이에 금방 매생이국 한 양재기가 사라져 버린다.

이 집 처마 밑엔 벚짚으로 묶인 매주 덩이가 조롱조롱 매달려 있고, 마당엔 밭로 쓰일 대나무 가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조막만 한 텃밭 너머론 가지런한 매생이밭, 김밭들이 널려 있고...

노인네들 4가구만 살고 있는 오성금 마을은 또 하나의 땅끝마을이다. 참으로 한적한 게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남도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마을이었다.

전설이 숨 쉬는 섬, 강화도

임금께 진상했던 강화 속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섬 강화도는 어찌 보면 섬 아닌 섬이 된 지 이미 오래다(하긴 울릉도를 빼놓곤 다섯 섬이 다 연육교로 육지와 이어졌지만). 게다가

서울, 인천과 가까운 거리에 일찍이 관광으로 개발 되었고, 요즘은 아예 당일치기 산책쯤으로 다녀오는 사람들도 많아져 그 진가를 속 깊이 알만 한 사람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겠다.

단군 신화의 전설이 살아 숨 쉬는 마리산, 매년 개천절이면 산 정상 참성단(塹城壇): 사적 136호)에서 제사가 되셔지고, 전국 체육대회 성화도 이곳에서 첫 불을 일으키니, 통일이 되기 전까진 강화 마리산이 잠정적인 민족의 성산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듯도 하고.

강화엔 마리산 뿐 아니라 길상산, 정족산, 해명산 등 3백여 미터 높이의 적당한 산들이 15~20개나 있다.

그리고 대몽항쟁 근거지가 이곳 강화에서 시작되어 진도로 옮겨갔다고 봐도 그리 큰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적당한 산세와 풍족한 평야, 게다가 너른 바다의 온갖 해산물들. 30만 인구가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삼별초가 몰랐을 리 있겠는가.

전등사와 정족산성 산책 길은 울창한 고목 숲을 헤치고 아스팔트길이 뚫려 있어 한번 둘러보기엔 별 어려움이 없지만, 한 가지인들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운 ‘숨겨진 보물’을 소개하기로 한다.

전등사에 ‘약사전’이란 아담한 건물이 있는데, 별다른 안내판도 없이 주목을 끌지 못하나, 여기엔 아주 중요한 역사 사실이 서려 있다.

불가에서야 다 아는 이야기지만, 원래 약사전이란 약사여래를 피신당이기도 하거니와, 이와 함께 임금께 진상하는 제반 약재를 올려 보내기 전에 의식을 거행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는 거꾸로 보면, 약사전이 있는 지역에선 각종 약재가 많이 생산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데 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버섯이나 나물, 희귀목 들이야 삼천리 깊은 산속에서 얼마든지 구하겠지만, 강화의 산들은 바닷바람(우리나라 바람은 북서풍, 남서풍이 대부분이다)에 시달리며 늘어났기에 그 산물들이 독특한 향미를 지녔다.

우리나라 어디에나 있는 소나무만 하더라도 바닷가의 험악한 지형적 조건에서 자란 ‘나막솔(나지막한 작은 크기의 소나무)’을 최고의 약용으로 치는데, 강화를 위시한 서해안 섬들의 소나무가 약용으로 크게 꽃 필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 생각된다.

‘약용 쑥’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강화 쑥으로 말하더라도, 위낙 제초제 같은 농약을 뿌려 대서 이젠 자연산이 거의 소멸해 버렸지만, 내리의 김국현 씨를 비롯한 몇몇 농가에서 다행히 재배에 성공하여 그 뒤를 잇고 있는 형편이다.

쑥은 지금은 누구나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렸지만, 이렇다 할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옛 춘궁기에는 훌륭한 구황 식품이었음은 나이 지긋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 게다.

음력 단오 무렵의 쑥을 제일 좋은 걸로 치는데, 쑥개떡이나 된장 쑥국을 비롯해 뿌리째 살짝 끓여 차로 마셔도 좋고, 조금 정성 들여 흑설탕에 쟁여 놓아 발효시켰다 물에 타

먹으면 한여름에 다시없는 건강음료가 된다. 한방에서야 ‘쑥뜸’의 재료로 꾸준히 사용돼 왔지만, 특히 부인네들의 제반 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니 주부들께서 유념해 사용해 보면 하찮은 쑥을 새롭게 받아들여 모시게 될 터이다.

강화 쑥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게 ‘순무’라 불리는 알토란 같은 무이다. 꼭 애들 장난감인 팽이 모양으로 생긴 이 순무는 연보랏빛을 띠었고, 무청도 튼실한 게 그 맛 또한 싸 하니 향취가 그만이다. 보통 이 순무로 김치를 담가 먹으며, 강화 어딜 가나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곳 마늘 또한 연보랏빛을 띠는데, 토질 관계(화강 편마암 계통)와 바닷가 섬 날씨에서 오는 기상조건, 그리고 이북 피난민들이 많이들 내려와 인삼 농사를 지은데 따른 작물들 서로의 영향이 맞물려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한다.

강화 읍내의 상설 시장 통엔 항상 산에서 나는 갖가지 약재와 나물·버섯·해물·순무·인삼이 즐비하

게 널려 있어 눈길을 끌게 마련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중국산 약재의 수입 홍수가 여기까지 파고 들어와 토종 약재로 팔리는 일이 많은 것이다.

없어서 못 파는 꽃게

강화군은 본 섬 말고도 큰 섬이 3개나 더 있는 섬들로만 이루어진 군이다. 따라서 어딜 가나 ‘바다 갯’에 흔히 접할 수 있다. 사람들과 자동차를 동시에 실어 나르는 철부선의 선착장이 있는 곳이야 한 섬에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지만, 조그만 어선들이 부업 삼아 나다니는 포구들은 본 섬만 해도 다섯 개가 넘는다.

외지 사람들이 가볼만한 포구로는 길상면 선두리, 하점면 여차 2리, 화도면 내3리(선수), 내가면 외포 2리인데, 요즘은 특히 꽃게 철이라 꽃게잡이 배들이 많다는 선수 포구의 배를 한번 타보기로 했다.

꽃게잡이 배를 타보기는 생전 처음이라 자못 가슴이 두근거린다. 집합 시간은 새벽 5시 30분. 물 때(썰물 · 밀물이 교차하는 시간)에 맞춰

입출항하니까 꼭두새벽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 첫새벽 일출 직후의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 20톤급 용길호 선장 한대경 씨(37세)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배는 곧 출발한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리산이 배 뒷전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고, 배 뒤쪽 갑판에선 아침밥들을 먹기 시작한다.

메뉴는 생선찌개, 김치, 그리고 별미인 바다가재 젓이다. 바다가재 젓은 처음 먹어 보는데, 계장과 담그는 법이 똑같단다. 계장과 비슷하면 서도 조금 다른 게 묘하게 맛있다.

꽃게 잡는 그물은 3중 유자망이라고 한다. 바다 밑으로 약 10m 정도 되는 그물을, 긴 것은 2m 길이로 3중으로 쳐놓고 조류의 흐름에 따라 그물에 걸려든 고기들을 그물에서 일일이 떼어내는 바다농사 방식이다. ‘템 마선’에 내린 3명의 어부들은 능숙하게 그물을 배 위에 올려선 ‘꽃게 따기’ 작업에 들어간다.

그물엔 가끔 아구나 농어, 가오리나 낙지도 심심찮게 걸려들었다. 이

런 건 배를 따서 배 위 갑판 줄에 매달아 바닷바람에 말리면 그날그날의 찬거리가 되는 것이다.

땀 시간 쉽 없이 작업을 해서 따낸 꽃게는 20kg 망태기로 대략 열두어 개. kg당 1만 2천 원이라니 엄청 비싼 편이다.

“여기 꽃게가 밀물과 섞이는 지점이라, 저 아래 남쪽 것보다 더 쳐 줘유. 어떤 건 1kg라구 해봐야 큰 것은 7백g 나가는 것두 있으니 두 마리가 1kg이라구 보든 되지유.”

동지나해에서 잡아 마취시켜서 톱밥에 넣어 운반하는 원양 꽃게보다 당일 발이(그 날 잡아 오는) ‘토종 꽃게’가 영양가나 신선도가 훨씬 좋을 건 당연한 이치다. 그렇게 값이 비싼데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에 귀빠지고 처음 보는 생선에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이것도 고집니까? 혹시 고무로 만든 모조품 아닌가요?”

“히히히~ ‘시옥지’여. 고래 사촌 새끼여.”

배를 타보면 가끔 고래처럼 물 위

로 봉긋 솟아올랐다가 물 튀기고 다시 들어가는 시꺼먼 놈들을 본 적이 있을 게다. 바로 그거란다.

온통 기름투성이라 먹을 건 내장 밖에 없어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건데, 오늘은 동네 노인들이 부탁해서 챙겨 가는 거라고. 옛날엔 소 등쪽에 상처가 나거나 해졌을 때 발라 주곤 하던 특효약이었단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는 ‘시옥지’ 기름을 한번 연구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엔 요즘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쥐포도 버리던 고기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부들이 이 시옥지를 보면 될 수 있는 한 잡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농어·송어를 잡아먹기 때문이란단다. 말하자면 천적을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포구에 배가 닿자 이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든다. 어떻게든 알고 왔는지 자가용 타고 온 관광객들도 한 20여 명 남짓 되고, 노량진 수산시장서 온 물탱크차도 눈에 뜨인다. 각

망태기들은 동네 사람들과 횃집 여
기저기에 나뉘고, 즉석에서 관광객
이 사가기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산
소통이 달린 물탱크차에 실려진다.

게는 매우 훌륭한 식품이기도 하
지만, 오죽하면 개가 귀해지니까 ‘게
맛살’ (동태가 주원료인)까지 나왔
을까. 게의 껍데기가 매우 소중한 유
기질 비료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게다. 비료·농약을 거부
하는 ‘유기농법’에서는 게 껍데기를
분말로 갈거나 ‘키토산’ 용액을 추출
해서 병충해 방제용으로 쓰는 ‘게 껍
데기 농법’이 벼나 채소, 과수, 과채
류, 차 농사에 귀하게 쓰이고 있다.
또한 한방에선 껍데기를 불에 태운
가루와 꿀을 반죽하여 동상이나 벌
에 쏘인 데 바르면 특효라고 한다.
일일이 수집하기가 어려워 그렇지,
게는 그 딱딱한 껍데기까지 유용하
게 쓰이는 셈이다.

꽃게엔 단백질이 16.4%, 지방
0.5%, 당분, 회분, 칼슘, 인, 철분,
비타민 B12의 성분이 들어 있고, 필
수 아미노산이 많아 발육기 어린이

나 노인, 허약 체질에 소화가 잘 되
는 좋은 식품이다. 특히 비만, 고혈
압, 간장병 환자엔 권장식품이다.

그렇지만 독성도 조금 있어(특히
기형인 게는) 풍이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는 먹지 않는 게 좋고, 감이나
정과(正果)와 함께 먹지 못하며, 편
도염·기관지, 목 부은 데는 한입 가
득 머금었다 조금씩 삼키면 특효이
며, 옷 오른 데 명약이기도 하다.

강화에서만 나는 흰새우

꽃게와 더불어 강화 ‘바다 것’의
대명사는 흰새우이다. 새우는 보통
크기에 따라 대하(큰 새우), 중치,
그다음 새우젓 담그는 잔새우 이렇
게 세 종류로 나누는 데, 잔새우는
물이 탁해져서(한강, 임진강의 썩은
물이 흘러들므로) 이곳 사람들조차
멀리하고 있고, 중치 흰새우는 날로
먹거나 보통은 말려서 마른반찬용
으로 쓰는데, 강화 흰새우는 예부터
이 지역 회귀종으로 붉은 홍새우의
5배 가격으로 대접받는다고 한다.

새우 속의 단백질(보통 12.9%)엔

필수 아미노산이 많고, 특히 글리신, 비타민이 들어 있어 고유한 풍미를 느끼게 한다. 강장식품으로 익히 알려진 새우에도 약간의 독이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양기가 과해 혈을 해치나, 김치 담글 때 넣는 새우젓은 배 속의 회충 및 치아에 기생하는 벌레들을 죽이는 역할도 한다.

꽃게와 흰새우 말고도 강화의 포구들에선 낙지, 간자미, 병어 같은 여러 해산물들이 다 고만고만씩 잡힌다. 대부분 당일 나갔다 들어오는 작은 배들이라 물때만 잘 맞춰 가면 비교적 싼값에 포식하고 장도 푸짐하게 보아 올 수가 있다.

간척공사가 일찍부터 이루어져 소금밭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왕소금도 많이 나고, 간척지 쌓은 양질로 이미 정평이 나 있고, 아무튼 강화엔 산과 바다 것이 골고루 풍족하게 어우러져 있다. 여느 시골처럼 젊은이들이 모두 대쳐로 떠나버려 ‘약사여래님’이 흡족해하실 보석 같은 토종 임수산물들이 가너리게 보살펴지고 있긴 해도, 강화는 아

직도 강산과 바다가 화려하게 보듬어진 가깝고도 먼(거리상으론 가까우나 그 진짜 보배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섬 아닌 섬으로 그냥 남아 있을 따름이니,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라. 참고삼아 강화엔 고대 지식묘에서부터 봉화대, 포대, 돈대 같은 조선말의 국방 유적지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화재가 넘쳐 있어, 이를 제대로 곰삭히며 답사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토종 임수산물도 만나보고, 이들 문화 유적도 두루두루 훑어보려면 아무래도 2박 3일 정도 일정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잠들지 않는 섬, 안면도

세계 반핵운동의 훌륭한 한 모범으로 우뚝 자리한, 편안히 잠자던 섬 안면도(安眠島).

93년 3월 8일 과학기술처 장관의 ‘핵 폐기장 후보지 검토대상에서 제

외'라는 공식 발표 이후, 안면도 주민들은 지나간 악몽을 씻고 또다시 새로운 삶의 풀무질에 여념이 없다.

어림잡아 2년 반에 걸친 뜨겁고도 지겨웠던 '내 고장 지켜내기' 안간힘은, 주민 모두에게 생존과 평화를 위해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자연환경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힘든 일인가를 새삼 뺏속 깊이 일깨워 주었다.

고남면 장곡리 3구 산 20번지 일대 모래산(속칭 소이 똥). 67년부터 약 25년에 걸쳐서 밀가루처럼 고운 은모래를 퍼내갔던 한국유리에 이제는 더 이상 무작정 빼앗길 수만은 없다고 93년에 허가신청서에 '주민 동의'를 보류시킨 것이다.

해당화 피고 지던 섬마을 약 3km에 걸쳐 뺏어있던 해당화 밭은 사라져 버렸고, 안면도의 상징 소나무 숲으로 뒤덮였던 산이 없어져 거꾸로 이젠 높이 된지 이미 오래다.

규사가 90% 이상 들어있는 최고 품질의 모래. 그 채취 작업에 인부 노릇하여 품삯은 받았고, 축대니 조

림이니 경로당, 도로포장, 행사 찬조 등 나름대로 생색내며 하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젠 더 이상 우리들의 살집, 우리 새끼들의 쉼터, 살림터이어야 할 이 마지막 모래언덕만은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 없다.

원상복구는 어렵더라도 이곳을 다시 쉼터이게 (누구나 즐겨 찾던 소풍처였다) 해놓으라.

“한 동네 부자 만든다”는 동죽(해방) 조개의 살림터를 보살하라. 사라진 해당화 밭을 살려 놓으라. 없어진 산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바닷가 모래사장 뒤편 방풍림을 조성하고, 이왕에 높이 된 곳은 저수지로 단장하고, 주민 동의 없이 퍼내가고 있는 바다 모래도 주민과 협의하여 피해 없는 곳만 골라서 조금씩 퍼가도록 하라.

너만 이득을 보고, 너네들 후손들만 후손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가 이롭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화목하게 어울리며 성장해 나갈 접점을 찾아내 보기로 하자. 우리들의 바람은 그게 전부다.

이곳에서 약 10km 떨어진(벉길 1시간) 곳엔 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내파수도가 있고, 거기엔 안중훈(73세), 선동규(70세) 두 할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이 섬을 부여안고 지킨다며 부릅뜬 두 눈에 염증을 들고 25년간이나 외로운 ‘섬지기’ 노릇을 하고 있다. 대자연에서 아직도 배우며, 호시탐탐 해산물들을 탈취하려는 해적들과 싸우며, 합법을 가장한 돈 먼 아귀들과 다투며(지금도 재판에 계류 중이다).

온 누리 기상이변으로 여름 아닌 여름에 어리둥절 시달린 우리들에게 ‘지켜지는 섬’ 안면도는 무수한 질문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내리꽂고 있는 게 아닌가.

북한 핵과 함께 일본 핵은 왜 언론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가. 남한 내의 원자력 발전과 그 피해 문제는 왜 모든 언론의 데스크에서 거부되고 있는 것인가.

국민대중이 눈뜨고 깨우치면 그것은 왜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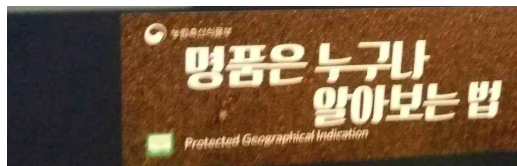
가. 모든 정책과 사업의 추진은 ‘공개’와 ‘토론’을 거친 합의로 이루어져 왔는가.

도대체 사람은 대자연의 일부인가 아닌가. 대자연이 지탱 가능한 개발을 위해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아직도 편안하게 잠자지(安眠) 못하는 것인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광고 “명품은 누구나

비행기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본 광고. 간편한 책상을 펴고 입국신고서를 쓰려는 그때, 그 앞에 붙은 1시간 동안 눈만 뜨면 꿈쩍없이 앞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비행기다. 그래서 옆에 앉은 아이에게 “어딘가 어색하게 보이는 이 광고, 말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어딘가 유식한 표를 내려는 글이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법은 잘 지키고 가득 찬 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광고가 붙었으면 얼마든지 돈을 맞게 엉뚱한 이런 광고를 내는 것이 그만큼 우리 국민의 수를 굳이 우리말법으로 고친다면 “좋은 것(식품)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말로 올바른 말법이고, 들으면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꾸밈없



이런 책은 읽지 마시다

이정우 이오덕학교 큰 선생님.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에서) 배운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녹색평론 출판사, 김종철/ 김태언 옮김

끝맺음(에필로그) -오래된 앞날(미래)

나에게는 오늘날 서구사회가 두 개의 뚜렷한 다른(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정부와 산업체들이 이끄는(주도하는) 큰 흐름에 따른(주류) 문화는 자연을 끝(한계)에 이르기까지 누르고(압박하고) 밀뿌리인(근본적) 인간욕구를 무시하면서 꾸준히(계속하여) 경제성장과 기술 개발로(향하여) 거침없이(무자비하게) 나아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주 넓은(광범위한) 집단과 생각

들로 이루어진 중심에서 벗어난 엉뚱한 흐름도 마찬가지로(반주류의 흐름이) 모든 생명은 뗄 수 없이 서로 이어져(연결되어) 있다는 오래된 지혜를 되살려왔다.

현재로서는 이것은 오직 몇몇의(소수의) 목소리일 뿐이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념의(진보의) 모든 것에(전체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그 목소리는 힘이 커지고 있다. 녹색정당들의 결성과 환경단체들의 회원 수가 늘어남은(증가는) 환경보호에 대한 참여가 퍼지고(확산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낱알(개개) 소비자들은 경제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기들의 힘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고, 기업들은 ‘환경에 대하여 사이가 좋

계(우호적으로)' 보이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정부와 주요 국제기관들은 환경을 정치의제 가운데에서(중에서) 높은 자리에(위치에) 놓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사회를 사회(적) · 생태(적) 균형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이상의) 더욱 좋게 일을 하려면 우리가 눈앞에 당하고(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짜임새 있는(체계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들어가 보면, 인종(적) 폭력, 물과 공기의 오염, 가족들이 흩어지고(외해), 문화가(적) 무너지는(해체) 것들을(동) 겉보기에 관련이 없는 듯한 문제들이 긴밀히 서로(상호) 이어져(연결되어) 있다. 그런 문제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러한 문제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이 맞닿는 점을(접점을) 발견한다면 그것들과 맞서 싸우려는 우리의 시도가 훨씬 더 뛰어난(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렇

게 되면 이런(각) 문제를 하나하나(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가닥을 잡아당기면 되느냐 하는 문제로 된다.

산업사회라는 그물은 크게 과학, 기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편협한) 경제(적) 체계(패러다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호작용) — 갈수록 더 중앙 집중(화)이나 전문(화)으로 나아가는 그 일(상호작용)에서(의해) 결정된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이래로) 정치와 경제의 단위는 커진 반면에 개인이 볼 수 있는 눈은(시각은) 더욱 막혀버렸다(제한되었다). 나는 우리가 균형 잡히고 건전한 사회로 가는 길을 찾아 가려면(발견하려면) 우리의 정치(적) · 경제(적) 구조를 중심에서 벗어나고(탈중심화하고) 지식으로 나아가는(향한) 우리가 가깝게 다가갈(접근) 방식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라다크에서 나는 사람과 닮은(인간적인) 크기의(규모의) 짜임들이(구조들이) 땅과의 긴밀한 끈을(유대들) 잇고, 활발하고 참여하는(적인) 민주주의를

키우며, 다른 한편으로 튼튼하고 생명력 있는 모둠살이(공동체), 건강한 가족,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간의) 보다 큰 균형을 어떻게 건디어(유지해) 주는가를 보았다. 이러한 구조들은 개인의 아무 탈 없이 편안하는데(안녕에) 필요한, 그리고 반대되는(역설적으로) 자유의 느낌에 필요한 안전성을 베풀어 준다(제공한다).

우리가 일으켜야 하는 변화는 우리의 삶을 매우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흔히 환경운동 안에서도(내부에서조차도) 희생으로 다룬다(취급된다). (우리가 얼마나 덕을 보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그만두고(포기하고) 더 적은 것으로 견뎌야 한다는데 크게 두드러지고(강조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끝없는 경제성장과 물질(적인) 번영이 정신(적) · 사회(적) 빈곤,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문화(적)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을(상실을) 값으로(대가로) 치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삶의 공허를 채우려고 마약을 찾거나 이상한 정신(적) 스승들을 찾아가는 것에 대하여 놀란다.

아마도 라다크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행복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그것은 내가 더디게 배운 교훈이다. 여러 해가 걸려서 가려보게 되는(선일견의) 여러 층을 벗겨내고 나서야 나는 라다크 사람들의 기쁨과 웃음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하고 구김 없는 받아들임이었다(수용이었다). 라다크에서 나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타고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모둠살이와(공동체와) 땅과의 긴밀한 관계가 물질이 넘치는(물질적인) 넉넉한 재산이나(부) 고급 기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았다. 나는 삶의 다른 길이 있다는(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세계 경제의 출현과 과학 · 기술의 점점 늘어가는(점증하는) 지배력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우

리들 서로의(상호간의) 관계를 끊을(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및) 문화의(적) 여러 가치를(다양성을) 무너뜨리고(파괴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생존) 바탕을(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자연의 세계에서 여러 모습은(다양성은) 필요 없는(불가피한) 생명의 현실이다. 우리는 아주 ‘하찮은’ 곤충이나 풀도 우리의 생존에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막 찾기(발견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식물과 동물의 종을 놀랄만한 속도로 아주 없애고(말살시키고) 있는 사실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중차대한) 문제가 되었다. 생물학자들은 지금 종의 여러 가지가(다양성이) 생명의 유지에 갖는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고, 어떤 생물학자들은 짧은(단기적) 이익을 위해 종의 여러 가치를(다양성을) 아주 없애는(말살시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 큰소리로 말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전역에서) 사람들은 멸종위기에 놓인(처한)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있다. 산이나 들에서 스스로 살아갈(야생)

동물의 앞날을(장래를) 지켜주는(보장하는) 일 말고(이외에) 사람들은 염소, 양, 조랑말 그리고 그 밖의 가축들 가운데에도(중) 멸종위험을 받는 핏줄들을(혈통들의) 억지로 이어가려는 일에(인위적인 번식에) 힘쓰고 있다. 어떤 곳에 사과 키우는(재배) 농가는 모든 사과나무가 ‘골든 딜리셔스’ 같은 단일 품종의 교배종으로 바뀌어 버리기(대체되어) 전에 그 지역에 본래 있던 전통 품종을 퍼뜨리려고 한다.

이러한 지금에서(현대적 상황) 경제 개발이 여러 가치를(다양성을) 늘렸다고(증가시켰다고) 믿기 쉽다. 재빠른(효율적인) 운송과 통신 덕분에 여러 문화권에서(으로부터) 하나하나 다른(다양한) 음식과 많은 생산품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문화의(다문화적) 경험을 쉽게(용이하게) 만든 체제들은(자체는) 그러한 여러(다양한) 문화를 죽이고(말살시키고) 세계 곳곳에(전역에) 걸쳐 지역문화의 차이를 차례로 없애는데(제거하는데) 힘쓰고(기여하고) 있다. 링곤베리와 파인애플 주스는 코카콜라로 바뀌고(대체되고),

모직 의복과 먼 사리는 청바지로, 야크처럼 높은 산에서 살던(고지대의) 소들은 저어지 암소로 바뀌고(대체되고) 있다. 여러 모습이란(다양성이란) 같은 회사에서 만든(제조한) 열 가지 종류의 청바지 가운데에서(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고른다는(선택한다는) 것을 뜻하는(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의(적) 여러 모습은(다양성은) 자연계의 여러 가지만큼(다양성만큼) 중요하다며, 실제로 바로 그것에 뒤따라 오는 것이다. 전통문화들은 음식과 옷(의복), 사는 집을(주거를) 첫 번째로 삼아(일차적으로) 그곳의(현지의) 자원에서 얻어오면서, 그 특정한 환경을 드러냈다(반영하였다). 오늘날 서구에서조차도 다양성에 대한 지역별 적응의 흔적이 남아 있다. 미국 남서부에는 아도비 벽돌로 지은 지붕이 납작한 집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막지대의 혹심한 기후에 어느 곳보다(이상적으로) 딱 맞는 것이다. 다른 한편, 뉴잉글랜드의 집들은 나무로 지어졌고, 눈과 비가 잘 쏟아져 내려가도록 뾰족한 지붕이 있다. 지중해 지방

의 요리에 흔히 쓰이는 올리브기름에서 스코틀랜드 사람의 아침밥상에(식탁에) 오르는 오트밀과 소금에 절여 말린 청어에 이르기까지 여러(다양한) 문화권에서 그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고유의) 음식들은 여전히 각 지역의 독특한 먹을거리(식량) 자원을 나타내고(반영하고) 있다.

문화(적) 또는 경제(적) 고립주의로 물러나지(후퇴하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역 전통을 복돋울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남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낯설은(이국적인) 문화를 우리의 소비를 위해 꾸러미로 만들어 써먹고(이용하고) 상업(화)하는 것도 아니다.

문화(적) 차이를 되살리는 가장 살리는(효과적인) 방법 가운데(중) 하나는 필요치 않는(불필요한) 무역을 줄이도록 영향력을 끼치는(행사하는) 것일 것이다. 바로 지금도 우리 납세자들의 돈이 수송을 위한 하부구조를 넓히고(확장하고), 무역을 위해 무역이 더 좋아지는데(증진시키는데) 쓰이고 있다.

우리는 대륙 전체에 걸쳐 우유에서 사과와 가구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지에서 쉽사리 만들 수 있는 온갖 물품을 나르고(수송하고) 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고(강화하고) 다양화하는 일이다. 수송을 위한 보조금의 양을 줄이거나(감축과) 없애서(제거를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결정적으로) 쓰레기와 오염을 줄이고, 농민의 지위를 높이고, 모둠살이를(공동체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무엇이 ‘지역에 맞는’ 것이며,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불필요한)’ 무역에 대비되는 ‘필요한’ 무역인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절대적) 똑같을(규정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결정될(적인) 문제는 국가(적인) 지원에서야(하에)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이라는 원칙이 옳고 그름을(비판적인) 다시 따져보아야(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보호주의를 지키기(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자연자원을 꾸준히 쓸 수 있게(지속가능하게) 또 평등하게 쓸(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세계시장을 특징짓고 있는 기업 조작, 감추어진 보조금, 낭비, 그리고 커다란(거대한) 광고비용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 시장은 건강한 지역 크기의(규모의) 경제 속에서만 찾아낼(발견할) 수 있다.

시장이 이 세계처럼 크게(세계화) 되기 위한(향한) 추세는 권력과 자원을 갈수록 몇몇의(소수의) 손아귀에 모을(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로 기대는 것이(의존도를) 깊어지는데(심화시키는데) 이바지한다(기여한다). 많은 서구 도시에서 사는 사람의(거주자의) 수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늘어나고(증가하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회사 다녀와야 할 사람들은(통근자들은) 점점 더 먼 거리를 다니고, 경제(적) · 정치(적) 권력이 얼마 안 되는(소수의) 대도시에 갈수록 모여들(집중됨에) 따라 전 지역이 예전보다 훨씬 못하게 된다(심각한 쇠퇴를 겪는다). 이들 도시의 언저리(범위) 밖에서 살고 일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진다.

흔히 농촌 지역으로 도시 사람들이 옮겨가기에는(인구이동이 이루어지기는) 사람이 너무 많고, 땅이 부족하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중앙 집중 체제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오늘날의 커다란(거대한) 도시들과 그것들의 물리(적) 요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먹이사슬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땅을 쓰게(사용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유사하다). (고기용 소가 그 자체로는 채소밭만큼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지만, 소에게 먹일 곡물과 그 밭에 댈 물과 그렇게 물을 대주면서(냄으로써) 말라버리는 땅을 계산에 넣으면 소 한 마리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대도시는 같은 수의 인구가 조그만 모둠살이들(공동체들) 이루고 흩어져 있는 경우보다 물리(적) 공간은 덜 차지하지만 에너지 시슬에서 더 높이 살고 있고, 도시에서(에서의) 사는 한 사람마다(일인당) 소비는 역시 더 높다. 고속도로, 운송, 중고 자동차 사고파는 곳(매매장), 유전, 식품가

공공장, 공기와 물과 땅의 오염은 오늘날의 대도시가 자연에 더 붙어(밀착해) 있는 따로따로 흩어진(분산적인) 모둠살이보다(공동체) 더 많은 자원을 쓰고(사용하고), 마지막으로(궁극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쓰고(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의미한다)

중심에서 벗어나는(탈중심화) 과정은 사회 경제체제 모두가(전체의) 함께한(연속된)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요한(정적인) 실체의 파헤치기(해체에)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방향 전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크기는(규모는) 해마다 갈수록 커지고 있고, 중앙 집중의(화) 논리는 새로운 극단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도 중심에서 벗어나(탈중심화의) 계획을 실제로 해야 할(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라도 뜻(의미) 있는 성취가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의 집단에 속해 있어

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자체로) 사람과 같은(인간적) 크기의(규모의) 사회 단위를 꾸미는(정당화시키는) 중요한 까닭이(이유가) 된다. 이 점에서(있어서) 우리는 가족의 규모는 크지만, 모두 살이는(공동체는) 작은 라다크에서(로부터) 몸소(직접) 배울 수가 있다. 아이들은 다른 세대를 살아온(숙한)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 좋은 점은(특히) 조부모의(와의) 보살핌을 받으며(유대를 통하여) 자란다.(성장한다) 이 대가족 속의 인간관계는 긴밀하지만 핵가족에서처럼 몹시 세차지는(격렬하지는) 않다. 각 개인은 긴밀한 관계의 그물으로(의해) 부양을 받고, 어느 하나의 관계가 지나치게 많은 무게를 이겨내지(감당하지) 않는다. 나는 핵가족제에서 그토록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애착이나 죄책감과 거부감 같은 것을 라다크에서 본 일이 없다.

분명히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가족은 일반적으로(적) 더 큰 공간과 차지있게(유연성을) 도와주며(제공하며), 한 사람에게(개인 각자에게) 여러 감정으로 나(정서적으로나)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훨씬 적은 압력을 준다. 대가족은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특히 유리하다. 대가족 안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혜로 인해 존경을 받고, 그들의 느린 움직임이 모두살이에(공동체에) 중요한 이바지를(기여를) 하는 것을 막지(방해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기술(적) 변화가 너무 빨라서 경험은 점점 더 가치가 없어진다. 우리는 우리 둘레의(주위의) 세상을 너무나 크게(극적으로) 달라져(변형시켜) 버렸기 때문에 늙은 사람들은 그들의 살아온 경험에서 내줄(제공할) 것이 별로 없다. 서구를 여행해 본 라다크 사람들은 말을 건넌 사람도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받는 변변치 않은(소홀한) 대우를 보고 놀랐던(경악했던) 이야기를 한다. 계룡 팔단은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들은 겨우 한두 시간 손자 손녀를 보려고 몇 달씩이나 기다리는데 그러고도 겨우 뺨에 잠깐 입맞춤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핵가족은 늙은 사람들을 가르는(배제하는) 것과 동시에 여자들을 가둔

다.) 전통사회에서 여자들은 가정과 일 사이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다. 가정은 경제의 중심이고, 두 곳은(영역은)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서 현대 세계에서 가족이 있는 여자들은 둘 중 하나를 골라야(택해야) 하는데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통 남편들에게는(오로부터는) 그저 구실뿐인(명목상의) 도움밖에 받지 못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거나 또는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낱새로(징후로) 보아 핵가족 제도는 제대로 돌아가고(기능하고) 있지 않다. 이혼율,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불화, 충격일(적일) 만큼의 가정 내 폭력과 성적 추행 들들은(동은) 핵가족제의 무너짐을(붕괴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심리학자들은 이제 ‘장애가족’을 보통(전형적인) 가족이라고 묘사한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사회에서 가족은 오늘날보다 좀 더 건강하고 서로 돌봐주는(상호부

양적인) 것이었다. 한때는 할머니는 옆집에 살고 사촌들과 아주머니들이 이웃에 있었다. 더 큰 모둠살이와 이어지는 것은(공동체와의 연결은) 좀 더 강하고 꾸준했다(지속적이었다). 이제 경제활동 영역이 넓어지며(확장됨) 따라 아이들이 크고(성장하고) 있는 동안에 가족이 여섯 번씩이나 이사를 하는 것도 벗어난(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이제는 물리로나(적), 경제(적)으로 또는 심리(적)로도 ‘할머니’를 위한 방은 없다.

내가 서구에서 사람들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흔히 “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요. 그렇지만 잘 안될 거예요. 이틀이나 사흘만 지나면 다들 미칠 지경이 돼버릴 걸요” 라고 말한다. 사실 그렇다. 당장은 잘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조직되어 있는 방식 때문에 늙어가는 부모와 한 집에서 사는 것은 짐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기본적인) 인간욕구를 더 중시하도록 우리의 정치(적) 가장 먼저

(우선순위) 바꾼다면(변화시킨다면) 사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외부세계에서(로부터) 자신을 끊는(차단시키는) 경향이 있는 핵가족과는 뚜렷하게(현저한) 다른(대조를 이루는) 라다크의 가족 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넓은 모둠살이로(공동체로) 퍼진다(확장된다). 때로는 어디까지가 가족이고 어디서부터가 모둠살이인지(공동체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자기 어머니만큼 나이 든 여자는 누구나 ‘어머니’라고 브록, 자신의 형제가 될 만한 나이의 사람들은 모두 ‘형제’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것의 찌꺼기를(잔재들) 아직도 산업화된 사회에서도 본다. 예컨대 스웨덴이나 러시아의 좀 더 오래된(전통적인)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친근한 어른들을 누구나 ‘아저씨’나 ‘아주머니’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우리가 모둠살이(공동체)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데 알만할(동의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간단하게 되었고,(단편화되었고) 하루 동안 부딪치는(접촉하는) 수많은 사

람들이 있는데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프게도 혼자라고 느끼며, 흔히 우리의 이웃조차 모른다. 라다크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서로 돕고 살아갈(상호의존적인) 모둠살이의(공동체의) 일부이다.

서구사회에서 모둠살이를(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야(탈중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동성은 모둠살이를(공동체를) 깎아 들어간다(침식한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한 장소에 애착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깊어지고, 좀 더 단단해지며(확고해지며) — 그것이 오랜(장)시간 이어지면(계속되면) — 좀 더 기댈(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오래된(전통적인) 라다크 사회의(에서) 좀 더 넓은 자신을 아는 것은(자아개념은) 서구문화의 개인주의와 반대를(대조를) 이룬다. 라다크 사람의 본바탕은(정체성은) 상당한 정도로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끈에(유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형성되며), 서로 비슷함

을(상호연관성) 강조하는 불교(적) 관점에 의해 세어진다(강화된다). 사람들은 그들 둘레에(주위에) 같은 크기의 동그라미를(동심원을) 이루며 펼쳐져 있는 관계의 그물 — 가족, 농장, 이웃, 마을 — 속에서 돌보게 된다(부양된다). 서구인들은 개인주의에 자부심을 그러나 때때로 개인주의란 스스로를 가두는(고립의) 듣기 좋은 이름일 뿐이다. 우리는 사람이 완전히 자기한테 넉넉해야(충족적) 한다고, 다른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나에게, 하나뿐인 아이가 집을 떠나 학교로 간 바로 그 해에 이혼을 한 친구가 있다. 당연히 그 친구는 불행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불행하다는 느낌이 자신이 허약하다는 표시라고 느꼈고, 독립해 있는 것을 좋아하고 텅 빈 집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간밀하게 짜인 라다크의 인간관계들은 메어있기보다는(억압적이기보다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으로 보이고, 나에게 자유에 대한 개념들

을(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이것은 겉보기처럼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심리학 연구는 옳다는(공정적인) 자신의(자아) 모습(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친밀하고 의존할 수 있고 오래 이어갈 만한(지속되는) 남들과의(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또 그것이 건강한 인간발달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라다크 사람들은 자신의(자아) 모습(이미지) 관점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 그것은 일부로 그런(의식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 의심이나 후회(회의)가 하나도(전혀) 없다는 것, 깊은 안정감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속의(내면적) 안정감이 너그러움을(관용을) 낳고, 저마다 차이가 있는 남들을(타인들을) 받아들이게 한다.

어느 여름에 내가 잔스카르 마을에서 아동발달과 아이들 돌보기라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무리의 어머니들에게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것이 늦으면 걱정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웃음

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일로 왜 걱정을 합니까? 아이들은 때가 되면 건게 마련인 걸요.” 서구 중심으로 흘러가는(주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갈수록 더 갈피 잡지 못하고(불안정하고) 경쟁으로(적) 되어 가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아기의 키와 몸무게의 세밀한 백분을 도표를 만들어낸다. 한 세대 전에 어머니들은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시간표대로 젖을 먹이라는 말을 들었다. 내 친구 하나는 딸아이가 아기침대에서 배가 고파 울면 자기는 옆방에 앉아서 젖을 먹여도 되는 시간이 될 때까지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구의 단일문화는 엄청나게도 그 환경에 맞춰 부드럽게 넘어가도록(순응주의의) 압력을 준다(행사한다). 스웨덴의 한 버스 정거장에서 나는 두 명의 어린 소년이 자기들의 운동화를 비교하고 있는 옆에 서 있었다. 그 가운데(중) 하나는 자기가 신고 있는 것이 옳은 상표라는 것을 보여줄 증거를 찾으려고 눈물을 글썽이며

온 힘을 다해(필사적으로) 신발 속을 뒤지고 있었다. 우리의 성별과 피부색, 나이에 있어서 우리가 ‘옳은 상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상처는 더욱 깊게 마련이다. 상업(적) 대중문화에서 문화(적인) 이상은 젊은 백인 남자이다. 그 결과 여자들, 작은(소수) 집단, 늙은이들은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는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탈중심화는) 우리가 새로 이뤄내야(이룩해야) 하는 가장 필요한 짜임새의(구조적) 변화이지만 그것은 그에 어울리는(상응하는) 세계관의 변화에 함께해야(동반되어야) 한다. 늘어가는(증가하는) 생태(적) 재난은 자연계의 폭넓은(광범위한) 서로 이어져있음을(상호 관련성)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거의 모든(대부분의) 학술기관은 갈수록 좁게 집중된 옛날(전) 문화를 꾸준히 이어하고(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인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만 묶으려는(환원주의적) 관

점은 실제로 산업문화라는 질병의 근본 원인 가운데(중의) 하나이다. 반대로(역설적으로), 보다 작은 크기의(규모의) 정치(적) 경제(적) 단위를 볼(향할) 때 우리는 보다 넓은 세계관 — 서로 이어져 있는 것에(상호 관련성에) 바탕을 한(기초한) 세계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모둠살이와(공동체와) 삶터에 대한 긴밀한 연관은 우리의 눈길을(시야) 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는 것에(상호 의존) 대한 이해를 북돋아줄(강려해줄) 것이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발밑의 땅과 둘레의(주위의) 모둠살이에(공동체에) 기대고(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기대는 것을(상호 의존성) 번번이(일상사로서) 경험한다. 그러한 서로 이어져 있는 것에(상호 관련성) 대해 깊이 겪어본(경험적인) 이해는 — 자신을 생명 연속체의 한 부분으로 느끼는 것 — 현대사회를 살살이 알아보고(분석적이고) 토막 토막 잘라본다(단편화한다). 그리고 이론을(적인) 깊이 따져 이리저리 생각해보면(사고) 뚜렷히(현저한) 다르다(대조를 이룬다).

우리는 살아 있는 세계와 좀 더 알아갈(교감하는) 관계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며, 보다 넓게 되풀이되는(패턴), 과정, 변화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은 생물학자끼리도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과실파리를 연구하고 있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생명을 조각조각으로 부수고 그것을 시간 속에 얼어붙으면서(동결시킴으로써) 어떻게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의 고요하고(정적이고) 기계 같은(적인) 세계관은 끝(한계에) 다다랐고(도달했고), 어떤 과학자들은 — 남달리(특히) 양자물리학자들 — 이제 세계를 꾸려진(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물질이 무엇이나는 낯은 관심에서(으로부터) 보다 떼어낼 수 없는(유기적인) 관점으로 모범이(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할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더욱 깊어진(심화된) 전문화를 보며(향해) 가는 주류문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는 전문스럽지 못한(비전문) 지식인 — 관련성을 알아보고 저마다(각기) 다른 분야 사이를 연결 짓는 사람 —을 바짝 다잡

아 힘쓰도록 복돋아 주어야(적극 장려)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기대할 만한(희망적인) 추세의 하나는 보다 여성의(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대한 존경심이 늘고(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생각 방법에(사고패턴에) 대한 연구는 여성 같은(적인) 관점이 감정의 면에서나 현실과 동떨어진(추상적) 사고의 면에서나 관계와 연관성을 더 중시한다는 주장을 밝히고(업증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은 분명히 여성들만의 자질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자들도 더 일부로(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여성 같은(적인) 면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이처럼 흐름을(맥락을) 중요시하는 사고와 실제로 있는(존재) 방식은 무시되어왔을 뿐 아니라 산업문화에 의해 무너져왔다(파괴되어왔다). 우리 사회의 지배하는(지배) 관점은 지금 균형을 잃고 있다. 여성 같이(적인) 바뀌는 것은(전환됨은) 오래 걸렸다(지체되었다).

이러한 전환에 더불어(수반하여) 경

험(적인) 지식이 강조될 것이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경험에서(으로부터) 논리를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점은 라다크 문화와 많은 오래된(전통적인) 비서구 문화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자연세계의 잡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얽힌 것을(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은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 경험을 한(통한) 학습은 역설투성이이고, 깔끔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우며 우리의 기대를 뒤엎는 혼란스러운 현실에 뿌리를(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피할 수 없게(불가피하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만일 우리의 연구가 실험실보다는 현장에서 — 실제로 논밭에서 — 할 수 있다면(행해진다면) 과학이(적) 나아가는 길은(진보는) 더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통틀어 있는(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갖는 숨겨진(잠재적인) 영향을 시간을 두고 돌아볼(검토할) 줄 안다면 우리는 생각지(의도하지) 않은 부서지는(파괴적인) 부작용을 덜 일으킬(발생시

컵) 것이다.

서구에서 우리는, 현실에서 한 단계 떨어진 채 겉모습들과(이미지들과) 개념들에 기대어(의존하여)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 타시 랍기아스는 영국에서 두어 달 지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중간에 무엇이 걸쳐져 있습니다(간접적).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글을 쓰고 이야기하고, 어디에 가든지 화분에 담긴 식물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물이 있고, 벽에는 나무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늘 자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도대체 실제의 자연과 만나는(접촉을 갖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스웨덴에 갔을 때 나는 친구인 카린과 함께 스톡홀름 도시 바깥의(교외의) 그녀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성공한(적인) 변호사이며 십 대인 두 딸의 어머니인 그녀는 그 전해 여름에 <라다크 계

획(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였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라다크가 내게 깊은 감명을 주었어. 나는 라다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았는지 자꾸 발견하게 돼” 라고 말했다. 스웨덴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자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환경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일을 줄였다. 그녀는 조금 느긋하게 살기 시작했고, 채소밭을 가꾸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카린과 같은 사람이 하나뿐이 아니다. 자연과 가까운(생태적) 마을(에코빌리지)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스웨덴을 휩쓸고 있다. 200개의 마을이 벌써(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그 모두가 다시 쓸 수 있는(재생가능한) 연료와(에너지와) 쓰레기의 재활용에 뿌리를(기초를) 두고 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퇴비를 쓴 옛 농사법 그대로 지은(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고, 집 가까이 농부들에게서 농산물을 사면서(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크게 키

우고(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자연자원의 무너짐을(파괴를) 국민총생산에서 빼는 환경예산 체제를 세우기로(확립하기로) 했다.

스웨덴의 이런 변화들은 올바른(결정적인) 곳으로 바뀌었다고(방향전환을) 드러난다(반영한다). 산업 세계 전역에서 사람들은 자연과(과의) 보다 나은 균형을 바라고(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오래된(전통적인) 문화들을 따라 하기(모방하기) 시작하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응급실(호스피스) 일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으로서의) 명상에 이르기까지 여러(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들과 가장 현대(적인) 문화 사이에 놀라운 비슷함이(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 라다크의 마을 사람들이 늘(항상) 해왔던 것처럼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부엌을 가정의 중심으로 삼고, 자연으로(적인) 기른 음식을 통째로 먹으며, 건강문제에는 오래된 자연 치료법을 쓰고(이용하고) 있다.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난 것이라든지 몸을 움직이는(육체적

인) 일에 대한 새로운 평가, 옷과(의복) 건축에서(에서의) 천연 재료를 쓰는 것(이용) 같은 보다 섬세한 면에서도 변화의 방향은 명백히 드러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지구 사이에 본래부터 있던(존재한) 오래된 끈이 이어진(유대) 관계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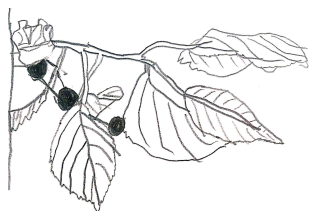
그러나 그 과정은 흔히 생각지 못한(무의식적인) 것이다. 우리의 주류문화는 진보에 대해 나아가는(선형적) 관점, 다시 말해(즉) 우리의 과거 그리고(및) 자연법칙을 무시하는 관점을 부추긴다(장려한다). 현대의 참말(진언)이라고 할 만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는 우리의 사고 속에 깊이 박혀(각인되어) 있다. 물론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올바른 앞날을(미래를) 찾는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는(불가피하게) 자연과의 — 인간 본성을 포함하는 — 더 큰 어우러짐을(조화를) 이루는 어떤 밀뿌리 같이(근본적인) 되풀이되어(패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 더 가깝게 알맞는(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하는 처음에서(시도에서) 가장 커다랗게 나아간 점은(진전은) 아이를 기르는(육아)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 분야가 여성(적인) 관점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일까? 고맙게도 우리는 자연(적) 본능을 더 존중하게 됨에 따라 시간표대로 젖을 먹이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다. 이제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은 모두 아기를 몸에 바짝(밀착시켜) 안거나 업고 다닌다. 우리는 옛날(전통적인) 라다크 사람들이 결코 잊어본 일이 없는 사실 — 인간은 누구나 (아낌없는(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아이들은 자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고 자기 나름으로 있어야 할(존재할) 권리를 애써 가로채야(쟁취해야) 할 필요가 없는 가족체계 안에서만 참으로 잘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

은 누리의(전 세계를 통해) 심리학에서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농사일에 서 가정의 부엌에 이르기까지 삶의

온갖 테두리에서(영역) 모든 생명의 서로 이어져 있다는(상호 연관성에 대한) 깨달음이 커지고 있다. 사람과 같은(인간적인) 크기의(규모의) 삶과 보다 여성(적) 같고 신비한(영성적인) 가치를 바라는(추구하는)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수요는 늘고(증가하고), 변화에 대한 갈망은 늘어가고(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흔히 ‘새로운’이라는 딱지가 붙여지고 있지만, 라다크가 보여준 것처럼 그러한 추세는 중요한 뜻에서(의미에서) 아주 오래된 것이다. 그것은 실상 수천 년 동안 있어(존재해) 왔던 가치를 — 자연 질서 속에 있는(에서의) 우리의 자리(위치), 우리 서로서로(의), 그리고 우리와 지구 사이에서(의) 뗄 수 없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연관성을) 알아보게 하는 가치 — 다시 찾는(재발견하는) 일이다.

〈‘오래된 앞날(미래)’은 이번 회보로 여기서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다른 책을 가지고 우리말로 바꾸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 2017. 11. 12 너무나 먹고 싶은 버찌의
손전화 사진을 보고 그렸다. (장은결 11살)

알

립

니

다

※ 이오덕 선생님 새 책 알립

- 글쓰기 하하하 (284쪽 13,000원)
- 글쓰기 더하기 (312쪽 13,000원)
- 우리 모두 시를 써요 (288쪽 13,000원)

양철북 출판사가 내놓은 ‘이오덕 글쓰기 교육 선집’(전 9권)은 이오덕 선생의 글쓰기 교육을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저번 5월 18일, 선집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27일 선집의 네 번째 책 ‘글쓰기 하하하와 ‘글쓰기 더하기’, ‘우리 모두 시를 써요’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7, 8, 9권은 곧 나옵니다.

【글쓰기 소개】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 이오덕

1925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2003년 충북 충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1944년 청송 부동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해 마흔두 해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다. 1951년 부산 동신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를 가르쳤으며,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은 관념이 아닌 현재 살아 있는 것을 글로 보여준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 아이들이 자신의 말로 자기 이야기를 솔직 소박하게 쓰게 하여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도록 한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현실 속에 이미 무한한 감동의 원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얻은 감동을 토해 내듯이 쓰면 시가 된다는 뜻에서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라고 했다. 1983년에는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과 함께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를 만들었다. 글을 쓸 때 어린이와 백성들이 말하는 그 말을 따르고 살려서 써야 교육과 겨레가 산다는 믿음으로 1980년 중반부터는 우리말 바로 쓰기 운동에도 힘을 쏟았다.

※ 회계 보고 (12월호)

- 들어온 돈

10 / 20 이정호 2천원
10 / 25 오판진 4만원
11 / 08 장만식 2만 2천원
11 / 10 박현주 10만원
11 / 20 이정호 2천원
11 / 02 김수정 5천원

- 쓴 돈

회보 100부 1통 발송비 630원씩 63,000원
회보 만드는 값은 1권마다 3,000원씩 300,000원
* 10월호 들어온 돈은 171,000원이고
10월호 나간 돈은 363,000원입니다. *
모두 363,000-171,000= 192,000원 부족합니다.

※ 알립니다.

* 김수업 선생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까이서 돕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선생님, 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 이오덕 선생님 교육선집은 6권이 나왔고, 앞으로 3권 더 해서 모두 9권이 나올 것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서점에서 주문하시거나 양철북 출판사 02-335-6407로 전화주세요.

※ ‘우리말 우리얼’ 회비 보내실 곳

우체국 300731-01-001609 이정우(이오덕학교)
- 1권에 3,700원. 1년에 6부가 만들어집니다. -
우리말우리얼 구독료 : 1년마다 22,000원 입니다.
우리말우리얼 누리집 : <http://cafe.daum.net/mael>

우리말

우리말

제
96
호

2
0
1
7
년

12
월
호

우리말살리는
겨레모임